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7
vol.304 04



커버스토리

영혼을 울리는 러시아 최고의 합창단
2017 러시아 국립 볼쇼이합창단 내한공연

반갑습니다

'2017 노자와 베토벤'으로
관객과 만나는 철학자 최진석 교수

표지_ 러시아 국립 볼쇼이합창단
부록_ 프로그램 가이드



다·복·동 사업과 함께하는 부산형 물복지 원년 부산 시민에게 드리는 무료혜택 4가지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집안 오래된
수도관 교체에
한도 내 전액지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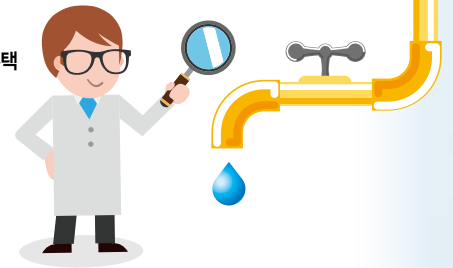
지원금액_ 단독주택 : 120만원
공동주택 : 100만원



주택내 수도관
노후 상태를 내시경
무료진단 해드립니다

지원대상_

오래된 수도관 교체 예정 주택
소유자 또는 신청자
(전문업체 출동 점검)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무료시행
해드립니다

신청대상_ 5층 이하 옥상 물탱크가 있는 건물



부산 곳곳에
맞춤형 음수대를
무료설치 합니다



2017

년도
2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강좌명		기간	횟수	시간	장소	정원(명)	수강료
클라리넷	A	4.5~6.14 (수)	10	17:30~19: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B	4.5~6.14 (수)	10	19:30~21: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가야금	A	4.4~6.20 (화)	10	17:30~19:00	컨퍼런스홀	12	140,000원
	B	4.4~6.20 (화)	10	19:30~21:00	컨퍼런스홀	12	140,000원
해금	초급	4.6~6.8 (목)	10	17:30~19: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중급	4.6~6.8 (목)	10	19:30~21: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클래식기타	중급	4.7~6.16 (금)	10	14:00~15:30	컨퍼런스홀	15	120,000원
	초급	4.7~6.16 (금)	10	16:00~17:30	컨퍼런스홀	15	120,000원
요가와 한국춤	new 원향지무	4.4~6.13 (화)	10	18:00~19:40	무용단 연습실	25	100,000원
	산조춤	4.4~6.13 (화)	10	20:00~21:40	무용단 연습실	25	100,000원
사물놀이		4.6~6.8 (목)	10	19:00~20:30	국악관현악단 연습실	12	120,000원
바이올린	new	4.3~6.12 (월)	10	19:30~21: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플루트	new	4.6~6.8 (목)	10	15:30~17: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아티스틱 판타스틱 미술사	new	4.8~6.10 (토)	10	14:00~16:00	컨퍼런스홀	30	120,000원
하이 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강의	new	4.8~6.10 (토)	10	10:30~12:30	컨퍼런스홀	15	120,000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수강신청 3.13 (월) 부터 선착순 마감

- ▶ 온 라 인 : www.bscc.or.kr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 2분기)
- ▶ 전 화 : 전시교육팀 (☎ 051-607-6061-3)
- ▶ 방 문 처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재)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전시교육팀

2017 Cellist 시리즈 II

박성완 & 이명진



지휘 박성완



예술감독 김원명



작곡 이한나

The 59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첼로 이명진

이한나 아리랑 어우름

Elgar Cello Concerto in E minor, Op.85

Sibelius Symphony No.1 in E minor, Op.39

2017. 4. 20 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인제대학교

관람연령 | 만7세 이상 입장료 | 1만원 문의 | 051) 220-5812 예매 | INTERPARK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제 3회 을숙도오페라 페스티벌
2017.7.3 ~ 7.22

윤흥신(尹興信) [?-1592]

1582(선조 15) 경천 현감에 부임하였으나, 윤씨를 폐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1592(선조 25)에
다대진 침략세사의 임명되었고, 무일 후 영아 피격받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계묘은 4월14일 부산관성을 함락시키고, 이튿날 다대진성
을 공격하였다. 윤흥신은 동생 윤홍재(尹興載)와 함께 인
관문을 지켜주어 함락 겨우다가 전사하였다.

윤 홍 신

오페라

임진왜란 1592년
부산 다대성을 지키다 순절한 다대참사
윤흥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 오페라의 대작!

2017.7.21 | 금 | 19:30, 22 | 토 | 1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300억 유산을 받고
펼쳐지는 웃음과 눈물의
코믹 휴먼연극!"

블랙코메디

아비



작 김광탁
예술감독/연출 곽종필

2017. 4. 4(화) - 4. 15(토)

주중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5시 / 입장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권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607-3123(전통예술팀 및 극단팀) 대상 7세 이상

매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인터파크 할인 문화체육관광부(30%), 문화체육부(20%), 문화체육부(50%), 중소기업진흥기금(25%) 이하의 장년 30%

출연진 황정기 정형실 이현주 이혁우 김은희 임지선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제작진 (대중문화진흥사업) 김경덕(감독) 김대형(제작) 박정호(제작) 황지선(조연) 오세현(조연) 김은희(조연) 김은옥(조연) 김은옥(조연) 김은옥(조연) 김은옥(조연) 김은옥(조연)



윤동주 시에 의한 합창음악회

윤동주

그 순결한 정신을 기억하며...

Program

〈혼성 합창곡〉

- 새벽이 올때까지 (김수진 작곡)
- 돌아와 보는 밤 (양상남 작곡)
- 십자가 (황장수 작곡)
- 간 (肝) (진소영 작곡)
- 편지 (백승태 작곡)
- 무서운 시간 (정수란 작곡)

- 거리에서 (김보현 작곡)
- 해빛 · 바람 (최석태 작곡)
- 또다른 고향 (김인철 작곡)
- 지화상 (최상화 작곡)
- 길 (조영은 작곡)
- 가슴 1, 2 (만일웅 작곡)

〈솔로 가곡〉

- 서시 (序詩) (최석태 작곡)
- 새로운 길 (최석태 작곡)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



소프라노
이승은



소프라노
이경미

2017.4.13(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 051)607-3115~6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4월의
SPECIAL +

영혼을 울리는 러시아 최고의 합창단
2017 러시아 국립 볼쇼이합창단 내한공연



08



16

CULTURE +

세계의 공연장
여행책에는 나오지 않는 로마 공연장 이야기



37

VIEW +

문화가 화제
2017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2017 제35회 부산연극제



56

NEWS +

부산문화회관 소식
(재)부산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 업무협약 체결

contents

SPECIAL +

- 10 커버스토리
영혼을 울리는 러시아 최고의 합창단
2017 러시아 국립 볼쇼이합창단 내한공연

CULTURE +

- 12 4월 공연 캘린더
- 14 반갑습니다
'2017 노자와 베토벤'으로 관객과 만나는 철학자 최진석 교수
- 16 세계의 공연장
여행책에는 나오지 않는 로마 공연장 이야기
- 20 축제 속으로
2017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 22 테마가 있는 여행
2017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

VIEW +

- 29 프리뷰
- 37 문화가 화제
2017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2017 제35회 부산연극제
- 40 리뷰
- 42 프로그램 가이드

NEWS +

- 54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56 부산문화회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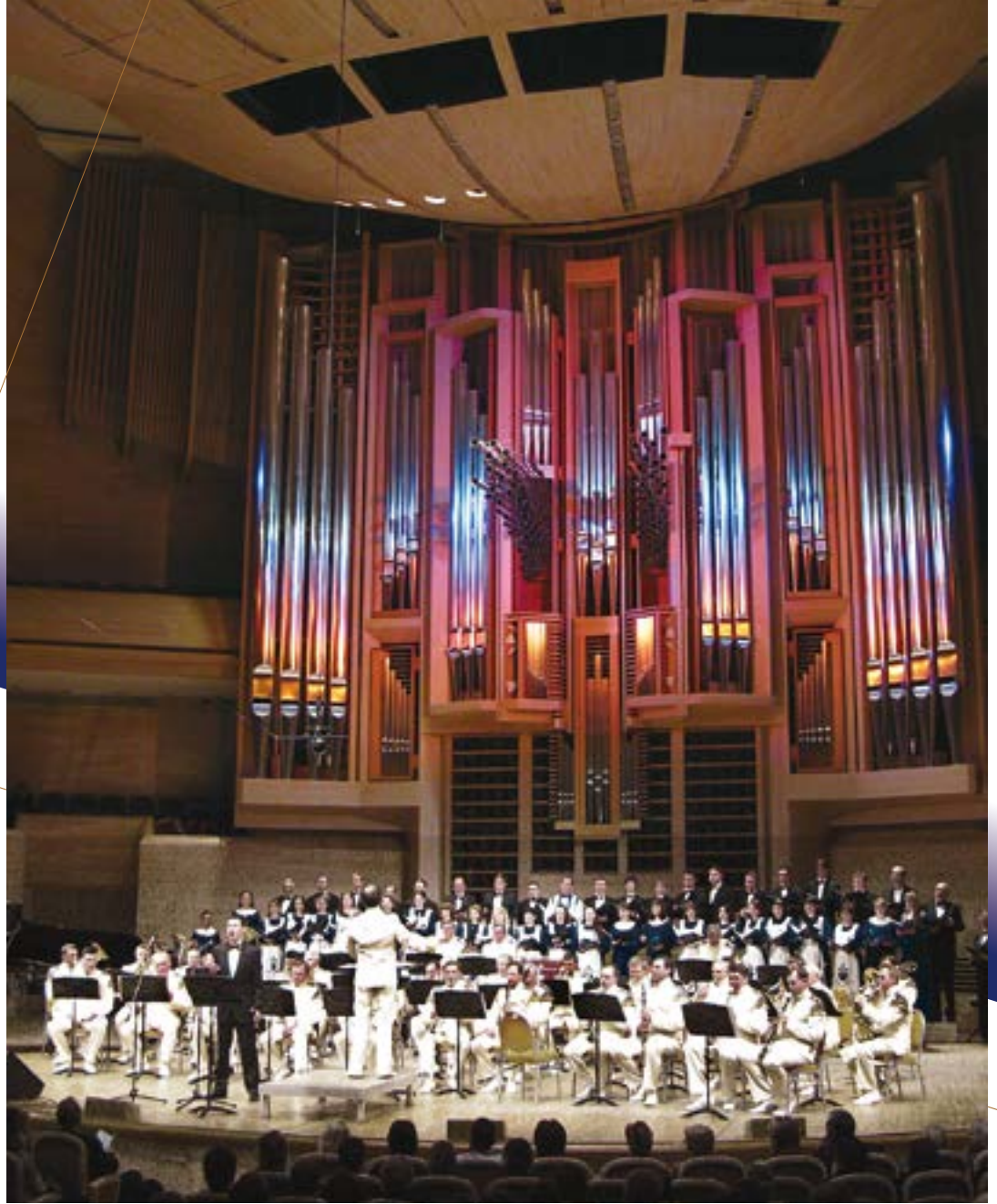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7년 4월호 통권 304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7년 3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볼쇼이합창단은 우리나라 최고 합창단이다. 이들 뛰어난 음악가들과 같은 시대에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생애 최고의 기쁨이자 영광이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영혼을 울리는 러시아 최고의 합창단

2017 러시아 국립 볼쇼이합창단 내한공연

광활한 대지의 울림을 들려주는 세계 최고의 합창단 '러시아 국립 볼쇼이합창단'이 4월 21일 부산을 찾는다.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최고의 합창단'으로 극찬한 러시아 국립 볼쇼이합창단은 지난 1928년 모스크바 국영방송국의 전속합창단으로 창단된 후 오랜 전통 속에 슬라브 특유의 깊은 원숙함과 저음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하모니로 세계 음악팬들을 매료시켜왔다. 특히 지난 1950년대,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오라토리오 '평화의 수호' 세계 초연무대와 칸타타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파리 초연무대의 대성공으로 세계무대에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러시아 국립 볼쇼이합창단은 당시 서구의 언론으로부터 '러시아 음악 전통을 가장 잘 간직하면서 현대적 감각을 지닌 합창단'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러시아 국립 불쇼이합창단은 그동안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홀, 뉴욕 링컨센터, 파리 콩피두센터, 런던 바비칸센터, 도쿄 카잘스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홀, 로마 콜로세움극장, 워싱턴 케네디센터 등 전 세계 60여 개국, 130여 개 도시에서 연주활동을 펼치며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지난 1988년, 올림픽 문화축전 행사에 초청받아 첫 내한 공연을 가졌던 러시아 국립 불쇼이합창단은 당시 관객들에게 강렬한 첫 인상을 남기며 이후 1994년과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 한국을 다시 찾았으며, 2009년과 2013년에는 부산에서도 공연을 가지면서 부산 관객들에게 슬라브 합창예술의 진수를 들려준 바 있다. 러시아 국립 불쇼이합창단은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에서부터 현대 레퍼토리에 이르기까지 알려진 레퍼토리만 대략 5천여 곡으로, 특히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 슈니트케, 하차투리안 등 근대 러시아 작곡가들의 많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면서 러시아 현대음악사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올해로 벌써 80주년을 맞는 러시아 국립 불쇼이합창단은 초대 음악감독인 러시아 합창음악의 대가 알렉산드르 스페쉬니코프를 시작으로 쿠비킨(1936년~1950년), 클라우디 치차(1950년~1983년), 루드밀라 예르마코바(1983년~2005년)에 이어 2005년부터는 러시아연방공훈예술가이자 모스크바국립음악원 합창교수인 레프 칸타로비치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아 합창단을 이끌어오고 있다. 1964년 러시아합창의 대부인 스페쉬니코프 국립합창학교를 졸업한 후 1969년 모스크바국립음악원에서 러시아 국립 불쇼이합창단 제3대 예술감독이었던 클라우디 치차 교수를 사사하기도 한 레프 칸타로비치는 긴스버그 교수로부터 심포니 지휘를, 슈니트케 교수로부터는 작곡법을 사사하며 지휘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음악적 재능을 터득했다. 1976년 모스크바국립교육대학 지휘강의를 시작으로 1989년 러시아국립예술극장대학 합창성악교수를 거쳐 1992년 러시아국립예술아카데미 합창지휘학과 학과장을 역임한 칸타로비치는 1996년부터 모스크바국립음악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써오고 있다.

이번 내한공연에서는 러시아 국립 불쇼이합창단 'Masters of Choral Singing'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세라피마 콘야쉬나, 메조소프라노 폴리나 바카노바, 테너 안드레이 바쉬코프, 바리톤 드미트리 쿠즈넛소프가 솔리스트로 무대에 선다. 카치니, 구

노, 슈베르트, 피아졸라, 생상 등 유명작곡가들의 '아베마리아'를 한자리에 서 비교, 감상할 수 있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러시아 민요를 비롯해 한국가곡, 월드뮤직을 들려준다.

Program

PART I

헨델/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
 V. Kikta/별들이 떨어지는 밤(The Night Drops Down the Stars)
 차이코프스키/왈츠
 카치니/아베마리아
 슈베르트/아베마리아
 바흐 & 구노/아베마리아
 바흐/바디네리(Badinerie), 스케르초(Scherzo)
 피아졸라/아베마리아
 생상/아베마리아
 모차르트/칸타타 '환호하라 기뻐하라(Exsultate, Jubilate)' 중 '할렐루야'

PART II

김규환/남춘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러시아민요(편곡/V. Agafonnikov)/볼가강의 큰 파도(On Volga River Billows)
 러시아민요(편곡/V. Agafonnikov)/강 건너 아마씨를 뿌리다(They Sowed The Flax Across The River)
 러시아민요/떡갈나무 아래, 느릅나무 아래에서(From Beneath The Oak, from Beneath the Elm)
 러시아민요/본향으로 가는 여인(Oh My Good Woman Let's Go Home)
 러시아민요(편곡/Fedor Rubtsov)/금작화(The Brooms)
 피아졸라/할아버지 안녕/작별인사(Adiós Nonino)
 귀도 로페즈 가빌란/I Que rico é!(Mambo)
 Jose Daniel Zúñiga/Caña Dulce
 러시아민요/칼린카(Kalinka)
 *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4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04

2017 APRIL

SUN	MON	TUE
<p>전시실</p> <p>제35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미술대상전 - 대전시실 4월 7일(금) - 4월 9일(일) 문의 : 박효덕(010-6269-7456)</p> <p>제11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 - 대전시실 4월 10일(월) - 4월 15일(토) 문의 : 이상희(010-4925-8500)</p>	<p>국제서화예술전 - 대전시실 4월 21일(금) - 4월 23일(일) 문의 : 김종곤(010-4448-9554)</p> <p>한국추사서화예술 전국대전 - 대전시실 4월 28일(금) - 5월 1일(월) 문의 : 권오관(010-3860-9958)</p>	
2	3	4
	<p>대 UKO오케스트라 제40회 사랑나눔 음악회 19:30 전석 2만원 UKO오케스트라(010-3863-3087)</p>	<p>스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미디 '아버'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9	10	11
<p>스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미디 '아버' 17:0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p>스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미디 '아버'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p>스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미디 '아버'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16	17	18
<p>스 김경수 제5회 피리 독주회 바람의 흐름 V '자유속의 질서' 17:00 초대 김경수(010-5481-8612)</p>		<p>대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38회 정기연주회 Beethoven 'Eroica 영웅' 19:30 5만원·3만원·2만원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8899-7308, 010-2323-6589)</p>
23	24	25
<p>스 2017 제35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연 '오페리아' 16:00 전석 2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제39회 한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 20:00 무료 한울림합창단(010-9044-7576)</p>
30		<p>스 2017 제35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세진 '지니스토리-새로운 언어' 20:00 전석 2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소 소극장 **아** 야외광장

WED	THU	FRI	SAT
			1
5	6	7	8
<p>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5회 정기연주회 '김봉미 수석지휘자 취임기념 Symphony No.5' 19:30 전석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7)</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미디 '아비'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미디 '아비'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미디 '아비'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노자와 베토벤 '喜怒哀樂' -1.회(喜) 17:00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미디 '아비' 17:0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12	13	14	15
<p>대 충무공 탄신 472주년 기념 호국음악회 19:30 무료 해군직전사령부(679-6622)</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미디 '아비'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p>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윤동주 시에 의한 합창음악회 '운동주..그 순결한 정신을 기억하며'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15~6)</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미디 '아비'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8회 정기연주회 '조숙한 천재들, 그리고 그들의 걸작'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미디 '아비'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p>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8회 정기연주회 아름다운 동요의 세계 '친구들이 모여라' 17:00 전석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 3170~1)</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미디 '아비' 17:0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19	20	21	22
<p>대 2017 닥터스 심포닉 밴드 제16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당일 선착순 입장) 닥터스 심포닉 밴드(010-9458-9258)</p> <p>소 2017 제35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필경사 바틀비' 20:00 전석 2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세상을 깨우는 '우리의 음악' 행복나눔 콘서트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소 2017 제35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필경사 바틀비' 20:00 전석 2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러시아 국립 볼쇼이합창단 내한공연 19:30 7만원·5만원·3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 2017 제35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연 '오페리아' 19:00 전석 2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2017 제35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연 '오페리아' 19:00 전석 2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26	27	28	29
<p>소 2017 제35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세진 '지니스토리-새로운 언어' 20:00 전석 2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노엘합창단 제58회 정기연주회 김기영의 '고향의 봄' 19:30 초대 노엘합창단(010-5796-1115)</p> <p>소 2017 제35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세진 '지니스토리-새로운 언어' 20:00 전석 2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II-바그너' 11:00 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 2017 제35회 부산연극제 '내일의 걸작' 19:00 무료(선착순 100명) 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양성식 & Erato Ensemble '한·일 앙상블의 밤' 19:00 2만원·1만원 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클래식, 철학을 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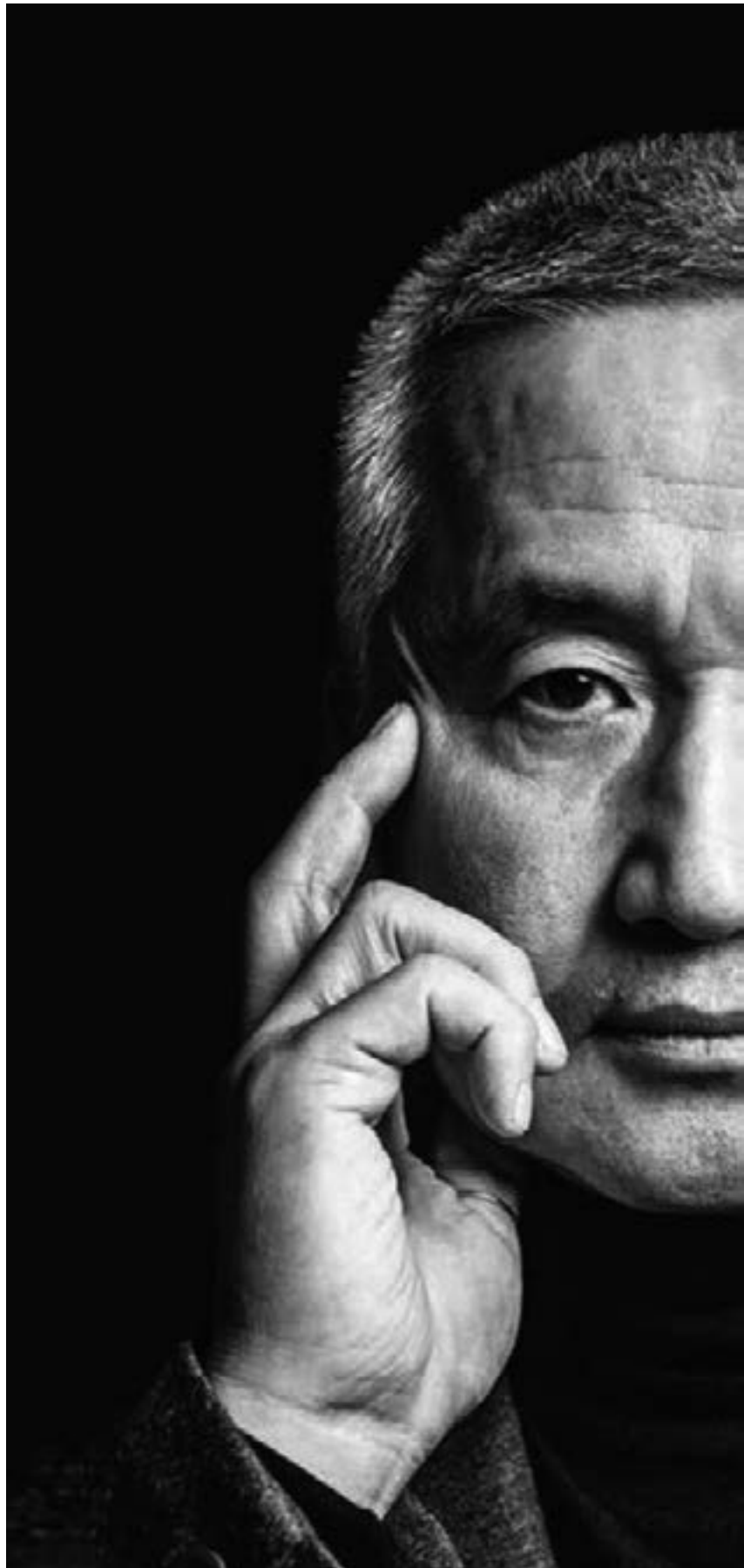
‘2017 노자와 베토벤’으로 관객과 만나는
철학자 최진석 교수

14

클래식과 철학의 만남으로 많은 호응을 받아온 ‘노자와 베토벤’이 2017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관객과 다시 만난다.

인간의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철학사상인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2017 노자와 베토벤’은 4월 8일 ‘희(喜)’를 시작으로 6월 10일 ‘로(怒)’, 9월 30일 ‘애(哀)’, 11월 11일 ‘락(樂)’까지 총 4회에 걸쳐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치유와 공감의 시간을 마련한다.

마에스트로 오충근 씨가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2017 노자와 베토벤’ 무대를 꾸며줄 ‘우리 시대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는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건명원 초대원장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 명성이 높다. 최근에는 2015년 건명원에서 진행한 철학강의를 묶은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출간, 자기 스스로 삶의 격을 결정짓는 철학적 사유의 힘이 무엇인지 제시하면서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진석 교수를 ‘노자와 베토벤’ 4월 첫 공연을 앞두고 서면인터뷰를 통해 만났다.



classical music



哲學

부산 관객과 다시 만나는 기쁨

- 부산 관객들은 항상 생기가 있고, 벌려진 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그 전체 판을 격조 있게 만들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그런 태도가 제게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 생기가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발전하여, 새 시대를 여는 동력의 출발점이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다시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충근 지휘자와의 만남, 철학과 클래식음악의 만남

- 오충근 지휘자님이 제 책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읽고 한 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첫 만남에서 마치,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인 것처럼 바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충근 지휘자님이 철학과 음악이 만나는 콘서트를 해보자는, 이 세상에 있어본 적이 없는 일을 제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지성적인 높이를 갖추고, 철학은 음악이 주는 감동을 매개로 활동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충근 지휘자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주제로 한 4회의 시리즈 공연

- 공연의 구성은 역시 음악과 철학의 만남을 통해 영혼의 승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은 인생의 전 과정입니다. '희로애락'의 감성적 느낌을 매개로 각자의 인생에 대한 깊은 높은 조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조망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삶의 의미로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희망을 갖는 일이기도 하겠습니까.

클래식과 나

- 처음에는 철학에 감동을 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클래식을 일삼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툴기는 하지만, 듣다보니 지금은 감동이 찾아오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은 슈베르트의 '미완성교향곡'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미완성교향곡'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들은 유일한 곡입니다.

철학으로 다가가기

- 철학이 그동안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친숙해지고, 철학적인 시선을 갖춰야만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팽배한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상승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인 내용을 이해하거나 숙지하려는 태도보다는 그냥 철학적인 시선의 높이를 경험하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음악이 주는 감동을 따라가시면 자연스럽게 그 높이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결탁을 모두 풀어버린 채, 빈 마음으로 그냥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철학

- 사실 철학이 위로를 주거나 힐링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매우 차갑고 냉정한 것이죠. 시대에 대한 통찰이나 깨달음을 줄 수는 있습니다.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입니다. 가장 높은 시선인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철학은 내용으로 규정되기보다는 높은 시선을 발휘하는 활동성입니다.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부단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 갖기

- 꿈을 가지십시오. 잃었던 꿈을 다시 찾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세계에 대한 자신만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독서를 하고 음악을 들으십시오. 갤러리에 자주 가십시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기보다 시대가 앓는 병을 함께 아파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탁월한 시선'이 자신에게 갖춰집니다.

클래식, 철학을 듣다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오직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는 계기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ITALY ROME

X

여행책에는 나오지 않는 로마 공연장 이야기

16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많은 영화와 책에서 로마(Roma)는 수도 없이 다루어져 왔다. 로마는 비단 이탈리아라 한 정짓기보다는 유럽과 인류 문화의 중심이자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연 문화를 언급하고자 하면 다소 이야깃거리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정치적 영향력, 문화·예술 등 모든 면을 놓고 이야기 했을 때... 이탈리아 No.1 도시임에 틀림없지만 밀라노의 라 스칼라, 베로나의 아레나, 피렌체의 5월 음악제 등 공연 문화만 놓고 보면 살짝 비껴간 느낌도 없지 않다.

하지만 로마는 너무나도 많은 콘텐츠가 있는 도시이기에 가려진 착시일 뿐 공연 문화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도시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먼저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1585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학교 중 하나로, 작곡가 팔레스트리나(Giovanni Palestrina) 등이 로마와 음악의 수호성인 성녀 체칠리아를 기념하여 이름 붙인 교육기관을 설립한 데서 출발한다.

처음에는 판테온에 본부가 있었으나 뒤에는 시내의 교회를 전전하였다. 한때는 교황청의 지원을 받은 적도 있고 미술가협회와 합병도 하였으나, 19세기 초 교회음악의 쇠퇴와 함께 활동이 저조해지고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음악 부문만 분리되어 1876년 음악중등학교가 되었다. 이후 1919년 국립음악원이 되어 독자적인 음악전문가 양



성과정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현재까지 우수한 음악가를 배출하고 있다. 소프라노 조수미도 이곳 출신으로 체칠리아 바르톨리, 엔니오 모리오코네 등이 동문이다. 음악 수업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로마의 소나무'를 작곡한 작곡가 레스피기가 이곳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음악원 소속인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관현악단(Orchestra dell'Accademia Nazionale di Santa Cecilia)을 이야기해보자. 이 오케스트라는 1886년에 창단되었는데 당시 오페라 극장 소속의 관현악단들이 대부분이던 시절, 최초로 관현악 연주를 전문으로 하는 악단으로 출범했다. 얼마 전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지휘했던 정명훈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음악감독을 역임한 인연이 있으며 현재는 지휘자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를 맡고 있다.

사실 로마에는 꽤 오랫동안 변변한 콘서트홀 하나 없었다. 이는 산타 체칠리아 아카데미 소속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줄곧 무대로 사용했던 '페아트로 아우스테오'가 지난 1936년 문을 닫으면서부터이다. 하지만 2002년 제노바 태생의 건축가 렌조 피아노의 설계로 유럽 최대 규모의 음악센터 '파르크 델라 무지카(Parco della Musica)'가 탄생했다. 총 건축비 1억 4천만 유로가 투입된 이 음악센터는 '공원'이라는 뜻을 지닌 '파르크(Parco)'라는 이름 그대로 녹지와 광장으로 둘러싸인 '음악공원'이다.



- 1 4
- 2 5
- 3

1 파르코 델라 뮤지카 오디토리엄
 2, 3 카라칼라 욕장 야외무대
 4 로마 오페라 극장 내부
 5 로마 오페라 극장 파사드

전체 면적 4만 2천㎡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광장 녹지만도 4만㎡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1993년 발표 이후 시작된 공사를 10여 년 가까이 끌고간 것은 지하 주차장 공사 도중 고대 로마의 유적이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BC 500년~310년 로마의 장교와 지주들이 살던 주택가로 AD 150년쯤 거의 파괴되고 말았다.

‘파르코 델라 뮤지카’는 대편성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위한 아레나 형의 대극장(2,756석) 오디토리엄을 비롯해 챔버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공연을 위한 직사각형의 중극장(1,200석 규모), 그리고 독주회를 위한 소극장(700석) 등 3개의 공연장이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반원형을 그리고 있다.

2002년 개관식 지휘는 당시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관현악단의 음악감독이었던 정명훈이 맡았다. 마침 이날은 로마 정도(定都) 2,275주년을 맞아 시내 전역에서 펼쳐지는 축제이기도 했다. 설계자 렌조 피아노는 파리 퐁피두센터와 일본 간사이공항을 설계한 스타 건축가로 ‘파르코 델라 뮤지카’는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로마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확실히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해서 이탈리아 내에서 오케스트라 전용극장은 드물다. 그런데 반해 오페라극장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도시들은 어김없이 존재한다. 마치두오모와 광장이 도시 중앙에 위치한 공식과 같이 말이다.

로마도 예외일 수는 없다. ‘로마 오페라극장(Teatro dell'Opera di Roma)’, 번역 그대로 ‘로마에 있는 오페라극장’이 공식 명칭이다. 하지만 1877년 이 극장을 설립했던 도메니코 코스탄치(Domenico Costanzi)의 이름을 따 ‘코스탄치 극장(Teatro Costanzi)’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등이 초연됐으며, 무솔리니 시절에는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Teatro alla Scala)’에 버금가는 극장으로 개조, 이후 나폴리의 ‘산카를로 극장(Teatro San Carlo)’과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극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야외공연이 가능한 여름이 되면 또 하나의 이름을 로마 오페라극장 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카라칼

라 욕장(Caracala)’이다. 카라칼라는 로마의 황제(재위 211년~217년)로 안토니우스 칙령을 발표하여 로마제국 내 전체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인물이다. 과시욕이 컸던 카라칼라는 인기와 인심을 얻기 위해 로마에 대목욕장을 건설하였는데, 이 대목욕장은 AD 212년에 착공되어 AD 217년에 완공되었다. 이곳은 모든 로마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거대한 목욕탕은 냉탕과 온탕으로 구분되었으며 아름다운 실내장식과 야외 정원으로 유명하다. 카라칼라 욕장은 6세기까지도 사용되었다가 고트족의 침략으로 파괴되어 폐쇄되었다.

그렇게 유적지로 방치되어 온 카라칼라 욕장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갈라콘서트가가 이곳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주빈 메타의 지휘로 좀처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없었던 ‘3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가 카라칼라 욕장에 운집한 6천 명의 관객 앞에서 불렀던 주옥같은 아리아와 칸소네는 밀리언셀러 음반으로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카라칼라 욕장이 야외 공연장으로 거듭나게 된 순간이다. 이후 카라칼라 욕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코스탄치에서의 정규시즌 공연과 썸머시즌 야외 오페라가 공연되고 있다.

필자에게 작품성과 대중성 두가지를 다 갖춘 오페라 한편을 뽑으라면 주저없이 푸치니의 ‘토스카(Tosca)’를 꼽는다. 1800년 6월 17일 한낮에 주인공 카바라도시가 안젤로티를 성당에 숨겨주면서 시작되는 이 드라마는 이튿날 새벽 카바라도시의 죽음으로 끝난다. 작품의 무대인 1막의 성 안드레아 델라 발레(Sant'Andrea della Valle) 성당과 2막의 파르네세 궁전, 3막의 성(聖) 안젤로성은 로마를 가로지르는 테베레 강을 사이에 두고 한 시간도 되지 않는 근거리에 있다.

언젠가 로마 여행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로마 오페라극장에서 ‘토스카’를 예약하고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레스피기의 교향시 ‘로마의 소나무, 분수’를 감상해보자. 그리고 성 안젤로성과 포로 로마노를 거닐고 트레비 분수를 마주할 수 있다면, 아주 공감각적인 여행이 될 것이다. 물론 꿈같은 이야기지만...

2017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7



- 🕒 4월 27일(목)-5월 6일(토)
- 📍 전주 영화의거리 및 전주시 일대
- 📞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회
063-288-5433
- 🌐 www.jiff.or.kr

● 독립·예술영화의 축제인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Jeonju IFF)가
4월 27일 화려한 축제의 막을 올린다.

지난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과 함께 첫 발을 내디딘 전주국제영화제는 주류영화와는 다른 도전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영화를 발굴하고 적극 소개하면서, 차별화된 전 세계 대안 독립영화의 중심 영화제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전주국제영화제는 출범 초기부터 영화를 둘러싼 통념과 상식을 뒤엎는 '대안 영화', '디지털 영화', '아시아 독립 영화'를 모토로,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영화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2017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총 45개국 211편(장편 163·단편 48)의 영화가 상영된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슬로건은 '영화 표현의 해방구'. 독립·대안정신 강화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에 중점을 둔다. 공식 포스터는 영화제 슬로건에 걸맞게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빛'과 '나비'를 형상화

시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화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왔던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신을 형상화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주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국경쟁' 부문은 상영시간 40분 이상의 중편 혹은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한 메인 경쟁 섹션으로, 올해는 일반 공모 128편, 지역영화 공모 5편의 출품작 중 프로그래머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1편의 작품이 본선작으로 선정되었다. 본선에 오른 작품으로는 '쌈'(감독 황규일), '폭력의 씨앗'(감독 임태규), '해피니스데이'(감독 이승원), '여수 밤바다'(감독 정형석), '수성못'(감독 유지영), '노마드'(감독 이완수), 'B급 며느리'(감독 선호빈), '금속활자의 비밀들'(감독 우광훈), '버블 패밀리'(감독 마민지), '파란나비효과'(감독 박문철), '홀로그래프 유니버스'(감독 김지혜) 등으로, '해피니스데이'를 제외한 모든 작품이 세계 최초 상영인 월드 프리미어로 첫 선을 보인다.

785편이라는 역대 최고 편수로 접수되어 화제가 되었던 한국단편경쟁 부문에서는 본선 진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총 19편이 선정됐다. 이들 작품 중 금태경 감독의 '주성치와 함께라면'은 지역 영화의 발굴,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도한 지역 영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이외에도 장편 '천사는 바이러스'(감독 김성준)와 단편 '숨바꼭질'(감독 김진아), '빈방'(감독 윤인상), '오늘의 중력'(감독 이시대), '선아의 방'(감독 채한영) 등 5작품은 주목할 만한 완성도나 주제의식을 갖춘 신인감독들의 영화를 선보이는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를 통해 소개된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해외 영화를 선보이는 '월드시네마 스케이프' 섹션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고유의 세계관과 스타일을 연마하며 자기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의 신작을 통해 세계영화의 흐름을 조망하는 '월드시네마 스케이프:마스터즈', 지역과 장르, 주제 등 다양한 스타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의 신작을 감상할 수 있는 '월드시네마 스케이프:스펙트럼' 외에도 전주국제영화제의 독립·대안정신에 맞는 도전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영화를 위한 새로운 섹션을 선보인다.

지난 2014년 장편영화 제작 프로젝트로 전환 후 4번째를 맞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7'은 올해 'N 프로젝트'(가제, 감독 이창재), '시인의 사랑'(가제, 감독 김양희), '초행'(가제, 감독 김대환) 등 세 편의 한국영화기 선정됐다. 영화제 출범 당시 단편영화 제작 지원 프로그램 '전주 프로젝트:삼인삼색'에서 시작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7'은 영화제작에서부터 상영, 배급까지 지원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간판 프로젝트로, 이들 세 작품은 후반작업을 마친 후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다.

이밖에 세계의 거장 감독 및 국가를 소개하고 영화의 마스터들과 대화를 나누는 '스페셜 포커스'에서는 현대 영국영화를 대표하는 거장 감독 마이클 윈터바텀 특별전이 꾸며진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음악과 텔레비전 영화를 넘나들며 40여 편이 넘는 장편영화를 제작해온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은 단순한 이야기꾼을 넘어 현실과 대결하는 시네아스트로, 영화제 기간 동안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이 직접 전주를 방문, 두 번에 걸친 마스터클래스와 관객과의 대화를 마련한다.



2016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식



영화 '초행'



영화 '시인의 사랑'

한편, 지난해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야외상영장은 '전주 스테이지'로 진화한다. 우천시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등 급변하는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대형텐트를 설치하는 한편,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영화제가 열리는 만큼 많은 관객들이 영화제를 찾을 수 있도록 야외상영 프로그램인 '전주 스테이지' 상영 횟수를 늘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2017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

여행의 설렘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색다른 문화체험 프로그램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이 3월로 11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6년 3월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로 첫 발을 내딛은 '정기회원 테마여행'은 2011년 2월 구제역 파동과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때를 제외하고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정기회원들과 여행길에 올랐다. 올해 들어서 1, 2월 잠시 휴식을 가졌지만 3월 10일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로 2017년 테마여행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22

꽃샘추위도 한풀 꺾인 지난 3월 10일, 경주여행을 떠나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을 찾은 정기회원 가족들은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 떠나는 봄 여행으로 설렘이 가득하다.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장용균, 이혜진 씨가 동행했다.



1

- 1 2 독락당
- 3 부산시립합창단 야외콘서트





한시간 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퇴계 이황 선생의 스승이자 영남학파의 선구자인 대(大)유학자 회재(晦齋) 이언적 선생(1491~1553)의 자취가 서려있는 옥산서원과 독락당. 독락당 앞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가 최승욱 씨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이언적 선생이 관직을 그만둔 후 낙향하여 지은 독락당(獨樂堂)은 집 자체가 보물 제 413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택은 사랑채인 독락당 외에도 청지기와 침모 등 측근 노비들이 거처하던 행랑채인 숨방채, 술거노비들이 거주하며 주인을 뒷바라지하던 공수간, 임금에게 하사받은 글과 서책들을 보관하던 어서각과 사당, 그리고 정자가 들어선 별당 등이 합쳐져 큰 살림집을 이루고 있다.

독락당과 계곡 사이에는 담장이 있어 외부로 향하는 시선을 차단하고 있으나 담장의 한 부분을 뚫고 살창을 설치하면서 이곳을 통해 계곡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볼 수 있다. 독락당을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담으로 막힌 뒤뜰이 나오고, 그 담에 난 일각문을 밀고 들어가면 독락당의 별당인 계정(溪亭)이 방문객을 맞는다. 특히 계정은 아예 개울 쪽으로 건물을 튀어나오게 지으면서 창을 열면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마치 한폭의 산수화 같은 풍광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다. 계정에 올라 봄기

운으로 가득한 자계천을 내려다 보는 정기회원들의 입에서 연신 탄성이 터져나온다.

계정에 올라다 보이는 자계천에서 부산시립합창단의 야외콘서트가 펼쳐졌다. 계곡을 따라 올라 퍼지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장용균, 이혜진 씨의 낭랑한 노래소리에 지나가던 주민들의 발걸음까지 멈춰선다.

야외콘서트의 여운을 뒤로 하고 동방오현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회재 이언적 선생을 제향하는 옥산서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선 중종대의 정치가요 사상가로 성리학의 거두였던 이언적 선생은 영남사람을 이끌면서 처음으로 사림파 이데올로기의 이념적 체계화를 이룩한 정통 성리학자였다. 서원은 그가 죽은 지 20년 뒤인 1572년, 묘우(廟宇, 신위를 모신 집)로 건립되었다가 1574년에 서원으로 승격되면서 선조로부터 '옥산서원'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정문인 역락문을 들어서면 누각건물인 무변루(無邊樓)가 자리하고 있고 무변루를 통과하여 계단을 올라서면 강당과 동서 양재, 무변루로 둘러싸인 중정(中庭)이 나온다. 그리고 그 앞으로 보이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이 바로 강당인 구인당(求仁堂)이다. 구인당 가운데 두 기둥 사이를 짝 채우며 걸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양동마을

‘玉山書院’(옥산서원) 편액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이며, 대청 안쪽 ‘求仁堂’(구인당)이란 편액의 글씨는 한석봉의 솜씨이다. 사당의 담장 밖 왼쪽에는 회재의 신도비가 있는 비각이 있고 오른쪽에는 책들을 보관하던 경각(經閣)이 있다.

옥산서원까지 둘러본 후 자계천을 따라 마을 입구까지 내려간 회원가족들은 시골밥상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 일정을 위해 양동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에서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전통마을인 양동마을은 지난 2010년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 최대 규모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조선시대 동성(同姓)취락으로, 월성 손(孫)씨, 여강 이(李)씨 등 양성의 양반가문이 서로 경쟁 및 협동하며 600여 년의 역사를 일궈왔다. 회재 이언적을 비롯하여 지금까지도 주로 학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마을로 이 마을에서만 조선시대 과거급제자가 116명에 달했다고 한다. 양동마을은 수백년 된 고색 창연한 54채의 옛 기와집과 이를 에워싼 110여채의 초가가 우거진 숲과 함께 펼쳐져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의 수는 전국 최대로 국보 1점, 보물 4점, 중요민속자료 12점, 경상북도지정문화재 7점 등 도합 24점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최승욱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양동마을을 여유롭게 돌아본 회원가족들은 경주에서의 짧은 일정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향했다.

04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김서령(금정구 식물원로)
김재경(해운대구 양운로)
남종경(해운대구 선수촌로)
박민준(남구 분포로)
배창길(중구 초량상로)

석종명(남구 진남로)
손수연(해운대구 반여로)
이준영(해운대구 대천로)
임대원(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임영희(금정구 부산대학로)

● 기존 회원

김길자(남구 우암로)
문혜경(부산진구 시민공원로)
민영기(해운대구 대천로)
백영심(동래구 여고로)
어혜정(동래구 사직로)

이혜수(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정정순(남구 분포로)
정희주(해운대구 청사포로)
최정숙(서구 임시수도기념로)
하용진(수영구 수영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부담)

| 일 정 | 대구근대역사골목투어(5월 2일)
| 신청방법 | 엽서·전화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6

조숙한 천재들

R. Strauss
W. A. Mozart

피아노 강충모



그리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8회 정기연주회
2017.4.14 금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그들의

걸작

Also sprach Zarathustra Op.30

Piano Concerto K.466



지휘 최수열

Program

엘가 : 한을 위한 세레나데 중 라르게토
E. Elgar : Serenade for Strings, Larghetto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W. A. Mozart : Piano Concerto No. 20

슈트라우스 :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R. Strauss : Tone Poem "Also sprach Zarathustra"

주최 부산문화회관 입장권 -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kso.or.kr 문의 607-3111~3113(주최처), 6075(장기회선)

☎ 카탈리스트 운영부: - 홈페이지: 공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공연 100% 정기 공연 - 부산문화회관 - 홈페이지: 1월~9월 800 (공연하는 날에 한함)

할인 50%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24세이하) | 외국인: 예매농민회
* 단체(10~30% 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아름다운 동요의 세계

친구들이 모여라

오륙도 / 마음이 이슬처럼 / 기차를 타고 / 푸른 바람 흰구름에게 / 바다
학교가는 길 / 꿈꾸는 봄 / 토닥토닥 / 사랑이 꽃피는 우리가족 등

2017. 4. 15 (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000원**

예 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607-3170~1

주최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세상을 깨우는 행복나눔 콘서트

우리의음악

2017. 4. 20(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이장필 / 수석지휘자



박현정 / 소프라노



문지훈 / 테너



박기국 / 하모니카



김항영 / 가수



정선희 / 성



박성희 / 성

- 1 국악관현악 [아름다운 세상] / 작곡: 김성국
- 2 국악가요 [사철가, 썩대머리, 사설난봉가]
/ 소리: 박성희, 정선희
- 3 국악관현악과 하모니카 협연 / 하모니카: 박기국
○ Ennio Morricone - Gabriel's Oboe
○ 광화문연가 / 이영훈 작곡

- 4 카운터 테너와 국악관현악 / 테너: 문지훈
○ 꽃밭에서 ○ 넬슨도르마
- 5 가수와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 테너: 문지훈, 가수: 김항영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여러분 ○ 상록수
- 6 타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희망은 자란다]
/ 작사: 임혜라 / 작곡: 백규진
/ 소프라노: 박현정 /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View Plus

April 2017
vol. 304

INVITATION TO THE ARTS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당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음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메디 '아비'



지난 2월 배우 워크숍 '누구니, 난?' 무대로 2017년을 힘차게 출발했던 부산시립극단이 2017년 첫 정기공연으로, 300억 유산을 두고 펼쳐지는 웃음과 눈물의 코믹 휴먼연극 '아비'를 선보인다.

극작가이자 연출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광택의 극본을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곽종필이 연출을 맡은 연극 '아비'는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싼 부모와 자식과의 갈등을 사실적이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돈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현대사회에서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해가는 '효'의 정신과 메말라가는 '가족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1996년 희곡 '꿈꾸는 연습'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후 그동안 '옥망이라는 이름의 마차', '아비', '백구사, 천년 광부의 노래', '누이야 큰방 살자', '능소전', '물고기 여인', '갯골의 여자들', '오장환과 이성복이 만나면' 등을 발표한 김광택은 2005 제1회 함세덕 희곡상, 2011 거창연극상 세계초연 희곡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그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긴 연극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로 제6회 차범석 희곡상을 수상했다.

어느날, 자신의 죽음을 인지한 아버지는 자신이 그동안 힘들게 모아온 전 재산을 고향에 있는 금강산재단에 넘기기로 결심하고 삼남매를 소집한다. 사업을 하는 큰 아들, 회사를 그만두고 연극 연출가의 길을 가는 둘째 아들, 초등학교 교사인 막내딸,

아버지가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삼남매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기 위해 애원하고 회유하고 협박까지 하지만 쉽지가 않다. 결국 어머니에게 이혼을 독촉하며 재판까지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배신감에 충격으로 쓰러지고 새로운 유언이 보관된 금고가 있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온 금강산재단 이사장과 만나게 된 삼남매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보관된 금고를 열어보는데...

생의 마지막에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기로 결심한 아버지와 평생 가부장적 사회 속에 억눌린 채 참고 오직 식구들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어머니, 그리고 유산을 차지하려 한통속이 되는 삼남매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그려낸 '아비'는 '돈'을 향한 인간의 욕망 속에서 가족을 위한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던 이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그려낸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비 역에 이혁우를 비롯해 어머니 역에 정행심, 큰 아들 황창기, 둘째아들 서보기, 막내딸 김은옥 외에도 이현주, 김은희, 오희경, 염지선 등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이 출연한다.

일시 4월 4일(화)-15일(토) 월-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3, 3125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노자와 베토벤 '히로애락(喜怒哀樂)' - I. 희(喜)



지휘 오충근



악보 최진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클래식과 철학의 만남으로 많은 호응을 받아온 '노자와 베토벤'이 2017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시리즈로 관객과 다시 만난다.

'노자와 베토벤'은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인 후 수차례 무대를 통해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클래식을 통해 현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하면서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해 왔다.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동주최로 새롭게 선보이는 '2017 노자와 베토벤'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철학사상인 '히로애락(喜怒哀樂)'을 테마로,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치유와 공감의 시간을 선사한다. 2015년부터 공연을 이끌어온 마에스트로 오충근의 지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우리시대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더욱 깊고 풍성해진 음악과 철학이 함께하는 무대로, 4월 8일 인생의 기쁨을 주제로 열리는 첫 번째 무대인 '희(喜)'를 시작으로, 6월 10일 '로(怒)', 9월 30일 '애(哀)', 11월 11일 '락(樂)'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인문·과학·예술 분야 국내 최고 석학들이 모인 인재육성기관인 건명원(健明苑) 초대원장인 최진석 교수는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 명성이 높다.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최진석 교수는 그동안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대

중과 만나왔다. 최진석 교수는 그를 '국민 철학교수'로 알려지게 했던 'EBS 인문학 특강'을 엮은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2015)'을 비롯해 최근 2015년 건명원에서 진행한 다섯 차례의 철학 강의를 묶은 '탁월한 사유의 시선' 등 수 권의 저서를 펴낸 바 있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KNN방송교향악단,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오충근은 베를린심포니오케스트라,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러시아국립에르미타주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오페라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등 오페라 무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부산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제9회 KNN문화대상, 제48회 난파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7 노자와 베토벤'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무대는 비극적 희곡 '코리올란'에 감명을 받아 작곡한 '코리올란 서곡'과 나폴레옹에 대한 존경과 분노가 함께 담긴 교향곡 제3번 '영웅' 등 베토벤의 곡으로 꾸며지는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슈만의 기쁨과 행복이 깃들어 있는 두 곡 '서곡, 스케르초와 피날레', 교향곡 제3번 '라인'을 들려준다.

일시 4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4개공연 동시구매 30%, 3개공연 동시구매 25%, 2개공연 동시구매 20% 할인)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운동주 시에 의한 합창음악회** **운동주...그 순결한 정신을 기억하며**



지휘 전진



2017년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시인 운동주를 기념해 부산시립합창단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 '운동주...그 순결한 정신을 기억하며'가 4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운동주 시에 의한 합창음악회'로, 시인 운동주가 남긴 그의 대표적 시에 부산의 중진 작곡가 12명이 곡을 붙인 창작 합창곡을 부산시립합창단만의 색깔있는 무대로 선사한다.

첫 무대는 작곡가 김수진 곡 '새벽이 올 때까지', 양성남 곡 '돌아와 보는 밤', 황장수 곡 '십자가를 혼성합창으로 들려준다. 작곡가 김수진은 현재 부산작곡가협회 사무국장, 향사회 이사, 창작합창21 이사, 신라대학교 겸임교수,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양성남은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외래교수, 황장수는 코람테오합창단, 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지휘자, 연제구립여성합창단 지휘자, 마린콰이어 지휘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음악과 외래교수로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조교수, 부산작곡가협회 부회장, 향사회 이사, 창작합창 21이사, An-ti-stimmung 회원으로 활동 중인 작곡가 진소영의 창작곡 '간에 이어 백승태 곡 '편지', 정수란 곡 '무서운 시간'을 혼성합창으로 들려준다. 작곡가 백승태는 (사)한국음악협회 김해지부장, 한국작곡가회 상임이사, 을숙도창작음악축제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수란은 향사회, 부산작곡가회, 창작합창 21, 안티스티몽 회원,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다. 작곡모임 '잉태' 회장,

부산시립합창단 작·편곡자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최석태가 작곡한 운동주의 대표작 '서시', '새로운 길은 소프라노 이지은의 독창으로 들려준다.

이어서는 작곡가 김보현, 최석태, 김인철이 '거리에서', '해빛·바람', '또 다른 고향'에 곡을 붙인 합창곡을 들려준다. 현재 국제현대음악협회(ISCM) 한국위원, musiCon 음악감독으로 있는 김보현은 독일 Duisburg시 문화부 작곡 특별상, 서울음악제 입상, 제40회 부산음악상을 수상했으며, 김인철은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다, 운동주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유명한 '자화상'은 작곡가 최삼화가, '길', '가슴 1, 2'는 작곡가 조영운, 안일웅이 곡을 붙여 시인 운동주의 삶과 예술세계를 합창으로 들려준다. 작곡가 최삼화는 동의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장, 부산음악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명예교수, 창작합창 21 고문으로, 조영운은 신라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향사회, 21세기 작곡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 다름슈타인 현대음악제의 단골 초청음악가로 국제무대의 주목을 받아온 작곡가 안일웅은 2018년 열리는 독일 드레스덴 페스티벌 위촉작곡가로 내정된 바 있다.

일시 4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8회 정기연주회 조숙한 천재들, 그리고 그들의 걸작

지휘자 최수열



피아노 강충모



천재적인 음악신동으로 유명한 작곡가 모차르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걸작들로 꾸며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8회 정기연주회 '조숙한 천재들, 그리고 걸작'이 4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활동 중인 객원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고 국내 최정상급의 피아니스트 강충모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엘가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 중 '라르게토'를 시작으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작품 466', R.슈트라우스 교향시 '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작품 30을 들려준다.

21세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젊은 지휘자로 현대음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지휘자 최수열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진은숙의 현대음악시리즈 '아르스노바'의 연습지휘자로 참여하며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인연을 맺은 후 2013년 차세대 지휘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제1회 지휘 마스터클래스에 참가, 참가자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이듬해인 2014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선임되었다.

첫 곡으로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풍부하면서도 서정적인 주제, 슬프고도 아름다운 멜로디 등 지극히 엘가적인 요소를 가득 담고 있는 엘가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라르게토'를 들려준다. 이어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13년만에 호흡을 맞추는 피

아니스트 강충모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최초의 단조 피아노 협주곡이자, 낭만적 색채의 풍부한 정서를 지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작품 466'을 들려준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가 드문 '바흐 전곡시리즈'를 통해 음악계와 애호가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한국 피아노 연주사의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강충모는 서울음대 졸업 후 도미, 샌프란시스코음악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피바디음대에서 Artist Diploma 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이수하던 중, 피바디음대 교수 채용 오디션에서 선발되어 피바디음대 교수를 역임했다. 그동안 다수 국제콩쿠르 입상자를 배출하며 교육자로서의 기량과 재능마저도 겸비한 탁월한 음악가로 평가받아 온 강충모는 지난 2005년 10월, 한국인 최초로 바르샤바 쇼팽 국제콩쿠르(2005)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권위있는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줄리어드 음악원 교수를 거쳐 현재 일본 토호음악원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마지막 무대는 이번 연주회의 하이라이트로, 교향시 장르의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엄한 음악적 대서사시 '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들려준다.

일시 4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8회 정기연주회 아름다운 동요의 세계 '친구들이 모여라'



지휘 이견륜



지난 2월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우정의 무대로 2017년 첫 무대를 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4월 15일 싱그러운 봄의 기운을 담은 창작동요로 2017년 첫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창작동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동요사랑회'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엄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불러보는 자리이다. 1994년 창립된 동요사랑회는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음악적인 경험을 통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아름다운 동심을 노래하는 순수 창작 동요를 작곡, 보급해오고 있다. 초대 박봉렬 회장을 중심으로 부산의 동요작곡가, 작사가들이 활동했으며, 현재는 류지원 회장을 중심으로 부산을 넘어 울산, 경남, 제주, 충북, 강원, 서울 등 전국의 동요 창작자들이 매년 30여 편의 창작동요를 발표해왔다. 제1회 동요사랑큰잔치를 시작으로 그동안 총 23회의 창작동요발표회를 개최해온 동요사랑회는 제22회부터는 '동요사랑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회 명칭을 변경하고 총 23장의 음반과 23권의 창작곡집을 발간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회장 류지원의 창작곡 '푸른 바람 흰구름에게'를 시작으로 고희영 곡 '바다', 김정훈 곡 '학교 가는길', 오영철 곡 '꿈꾸는 봄', 오희섭 곡 '토닥토닥'과 원로 작곡가 신진수 선생의 '친구들이 모여라' 등 신작 창작곡과 우리 귀에 익은 유명 창작 동요 '오륙도'(박봉렬 곡), '마음이 이슬처럼'(신진수 곡),

'기차를 타고'(김태호 곡), '반달'(윤극영 곡), '아빠 힘내세요'(한수성 곡) 등을 들려준다.

이 외에도 2017년 제2회 언어,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창작곡 대회 대상을 차지한 김지원 곡 '가나다라마바사'와 지난해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보인 '별난음악교실' 수강생인 명장초등학교 3학년 최소운이 직접 작사, 작곡한 창작곡 '물놀이'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물놀이'는 꼬마작곡가의 꿈을 키우는 최소운이 직접 노래 부르며, '가나다라마바사'는 지난해 울산에서 창단된 '조이엘리 중창단'이 부산을 방문, 부산 지역 청소년들과 노래로 하나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조이엘리'는 이탈리아어로 '보석들'이라는 뜻으로 단원 모두가 무대에서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신생중창단이다. 그 외에도 화명초등학교 꿈이소리 중창단, 정관중창단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이 시대 어린이들의 정서, 이야기를 담은 재미있는 창작동요로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이견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지도/이영옥(반주), 김양자(성악), 노금선(무용)
- 출연단체/화명초등학교 꿈이소리합창단, 조이엘리중창단, 정관중창단
- 반주/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

일시 4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3170~1
입장료 전석 2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세상을 깨우는 '우리의 음악' 행복나눔 콘서트



지휘 이정필

하모니카 박기국

테너 문지훈

가수 김환영

소프라노 박현정

국악의 신명과 아름다운 노래가 만나 행복을 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세상을 깨우는 우리의 음악 행복나눔 콘서트'가 4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 하모니카 연주자 박기국, 테너 문지훈, 소프라노 박현정, 가수 김환영, 부산시립합창단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창작국악관현악에서부터 국악가요, 대중가요, 오페라 아리아, 창작합창곡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첫 곡인 김성국 곡 국악관현악 '아름다운 세상'은 심훈의 계몽소설 '상록수'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으로, 소설 속 주인공 최용신이 꿈꾸던 아름다운 세상을 음악으로 그려낸다.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가 들려주는 국악가요 '사철가, 쑥대머리, 사설난봉가' 무대에 이어서는 하모니카 연주자 박기국의 하모니카 협연이 펼쳐진다. 경성대학교 음악과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라몬 올 대학교 전문연주자 성악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바르셀로나 파레음악학교 하모니카 교육과정을 이수한 박기국은 성악가로서 뿐만 아니라 하모니카 연주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박기국은 엔니오 모리쫘네 '가브리엘의 오보에', 대중가요 '광화문연가'를 하모니카 연주로 들려준다. 이어서는 시각장애를 극복한 성악가이자 소프라노 음역대를 소화하는 카운터테너로 유명한 테너 문지훈이 출연, 대중가요 '꽃밭에

서'와 우리에게 친숙한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Nessun Dorma(아무도 잠들지 마라)'를 들려준다. 문지훈은 2015년 KTV '천상의 소리'가 뽑은 천상의 목소리 주인공, 대한민국의 힘 희망을 주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MBC 대학가요제 은상 및 네티즌 인기상을 수상하며 가수로 데뷔한 후 현재 고신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밴드 'The Twelve' 보컬로 활동 중인 가수 김환영은 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으로 관객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작곡가 백규진이 작곡한 타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희망은 자란다'. 지난해 이정필 수석지휘자 취임연주 위촉곡으로 첫 선을 보인 '희망은 자란다'는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희망찬 모습을 타악과 합창, 국악관현악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현정과 부산시립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선다. 박현정은 신라대학교 음악과와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태리 밀라노 음악원, 토스카니니 아카데미 까를로 베르곤지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한국성악콩쿠르 최우수상, Mascagni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일시 4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Ⅱ -바그너 편-

조운범



이동신



박현주



김준연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웰빙콘서트' 두 번째 무대 '오페라 이야기-바그너 편'이 4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3월 '베르디'에 이어 이번 무대에서는 베르디와 더불어 19세기 오페라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작곡가 바그너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해설,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소프라노 박현주, 테너 김준연의 협연으로 바그너 오페라 '탄호이저' 서곡을 시작으로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로엔그린',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유명 아리아와 관현악 '지그프리트 목가'를 들려준다.

'그의 강의를 듣는 순간 누구도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파격과 기발함으로 무장한 음악계의 괴물! 개그콘서트보다 재미있는 토크콘서트'라는 찬사를 받는 해설자 조운범은 지난 2007년부터 극동아트TV(전 예당아트TV)의 '과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운범의 파워클래식'을 진행하며 뛰어난 말솜씨와 해박한 지식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아왔으며, 현재 '노홍철의 굿모닝FM'의 클래식음악 코너 진행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를 통해 오랜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지휘자 이동신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부설 루빈스타인 국립극장 부지휘자, 미시간주립대학교 연구원 및 부지

휘자, 마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겸임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박현주는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제37회 동아콩쿠르 1위, 독일 베르크하임 콩쿠르 1위, 쾰른 국제음악콩쿠르 1위 및 관객상, 일본 시즈오카 국제오페라콩쿠르 1위, 독일 NRW주 올해의 스타상, 2009 대한민국 오페라상 여자성악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있다. 또 다른 협연자 테너 김준연은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성악과, 독일 함부르크시립음대 성악과 최고연주자과정, 이태리 Norma ILL Seminario 시립음악원 뮤지컬과, Roma Accademia 성악과, Milano Masate G. Donizetti Accademia 합창지휘과를 졸업하고 이태리 NICOLA MARTINUCCI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이태리 ORVIETO 'SPAZIO MUSICA' 제17회 국제성악콩쿠르 3위에 입상한 바 있다. 김준연은 현재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외래교수, 동서대학교 뮤지컬학과 외래교수,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시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학생단체 20명 이상 1인 5천원, 3회 동시구매 30% 할인)

부산시립극단 2017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지난해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했던 부산시립극단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이 올해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 1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질 부산시립극단의 어린이를 위한 맞춤 페스티벌 '2017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은 어린이극에서부터 인형극, 마술쇼, 가면 만들기, 이야기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이다.

우선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는 온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행사가 마련된다. 부산시립극단이 마련한 가족인형극 '꼬마 도깨비 깨비의 옛날 옛날에'에 이어 어린이극단 '끼리프로젝트'의 어린이 뮤지컬 '모해? 모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공연 '환상의 나라로', 부산시립무용단의 춤추는 동화 '개굴개굴 청개구리', 그리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신명나는 국악동요'까지 다채로운 공연들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꼬마 도깨비 깨비가 도둑맞은 도깨비감투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가족인형극 '꼬마 도깨비의 옛날 옛날에'에서는 우리의 전래동화 속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뒤죽박죽 이야기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모험과 환상을 심어준다. 어린이뮤지컬 '모해? 모해!'는 핸드폰게임에 빠져있는 푸름이가 전화기도 컴퓨터도 없는 모해마을에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한바탕 소동

을 그린 창작뮤지컬로, 추억 속 전통놀이를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다. 가족인형극 '꼬마 도깨비 깨비의 옛날 옛날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 어린이 뮤지컬 '모해? 모해!'는 오후 2시에 펼쳐진다. 오후 2시 50분부터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신나는 동요여행이 펼쳐진다. 다양한 재즈 느낌을 담은 영국작곡가 밥 칠콧의 'A Little Jazz Mass', 박지훈 곡 '진달래꽃' 등 다양한 곡을 들려주며, 참석한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부르는 시간도 갖는다. 어린이들에게도 익숙한 전래동화 '청개구리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춤사위로 풀어낸 부산시립무용단 '춤추는 동화-개굴개굴 청개구리'는 오후 3시 50분부터 펼쳐진다.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신명나는 국악동요 무대로, 개구리, 술래잡기(오상문 곡), 사물악기가 된 도깨비(모형오 곡), 사방치기(황옥경 곡) 등 신명넘치는 국악동요를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한다.

이밖에 행사기간동안 소극장 앞 광장에서는 가면 만들기 체험과 어린이 난타체험, 손가락 인형 만들기, 이야기책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만날 수 있다.

일시 5월 1일(월)~3일(수) 오전 10:30~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및 광장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3, 3125
입장료 무료(가족인형극 '옛날 옛날에' 전석 2천원)

2017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우리나라 최초의 단편영화제이자 그동안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세계 각국의 우수한 단편영화들을 소개해온 제 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4월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간의 축제를 시작한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지난 1980년, 8mm 소형영화를 비롯해 대학생 및 일반인들의 독립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편영화들을 소개하던 한국단편영화제에서 출발, 1982년 대한민국단편영화제, 1987년 한국창작단편영화제를 거쳐 1997년 부산단편영화제, 2000년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로 확대 개편해오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제작된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단편영화들을 소개해오다 지난 2010년부터 국제단편영화제로 확대, 지금의 이름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로 34회를 맞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응모작 총 126개국 4,773편 중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한국경쟁 부문 23편, 국제경쟁 부문 29개국 37편 등 총 60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이는 지난해 109개국 4,497편보다 236편이 늘어난 숫자로 영화제 역대 최다 출품을 기록, 해마다 높아져 가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경쟁 본선에 오른 작품 중에는 2017골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에서 국내경쟁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줄리앙 실로레이 감독의 'Fefe Limbe', 2016년 테헤란국제단편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인 바지다프타리 아리안 감독의 '아직도(Not Yet)', 2012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에 진출한 바 있는 진 후아칭 감독의 '티베트 소녀(The Tibetan Girl)'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경쟁 진출작 중에는 2015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승희 감독의 '심심'을 비롯해 2005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김수영 감독의 '능력소녀', YG케이플러스가 제작한 웹무비 프로젝트인 박현철 감독의 '개들의 침묵'이 눈에 띈다.

전 세계 단편영화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된 통합 프로그램 '월드 쇼츠'도 올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시아 단편영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아시아 단편'과 칸 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 영화제의 단편영화 부문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커튼콜', 스웨덴 읍살라 단편영화제와 교류하는 '읍살라에서 온 짧은 편지' 등 기존 3개 프로그램에 단편영화 거장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프리즘'이 올해 처음 신설됐다. 거장 감독들의 단편을 소개하는 '프리즘'에서는 마크 라파포트, 케빈 제롬 에버슨, 톰 앤더슨 등 미국 감독 3명의 다양한 작품뿐만 아니라 단편영화의 거장 장 마리 스트로브 감독의 최신작을 볼 수 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패밀리 단편 프로그램이 한층 강화됐다. 기존 패밀리 단편에 '어린이를 위한 패밀리 단편', '청소년을 위한 패밀리 단편' 등 영화를 관람하는 연령층을 보다 세분화해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 나라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기회를 제공하는 '주빈국 프로그램'의 올해 주인공은 캐나다로, 이번 영화제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원주민 출신 캐나다 래퍼의 개막식 공연,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새로운 형식의 VR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밖에 지난해 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새단장된 '아시아단편영화 오픈토크', 영화 인문학 세션이 새롭게 추가된 '부산 국제트렌스미디어포럼'도 눈여겨볼 만하다.



4월 25일(화)~30일(일)

영화의전당,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 운영위원회
742-9600, www.bisff.org



3월 31일(금)~5월 1일(월)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2만 원(전 공연관람 프리티켓 5만 원)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2017 제35회 부산연극제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부산연극제 2017년 무대가 3월 31일부터 부산 시민회관과 부산문화회관, 부산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35회를 맞는 이번 부산연극제는 3월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17 대한민국연극제 부산지역 예선을 겸한 경연부문과 소극장 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자유참가부문, 부산시민이 만들어가는 부산시민연극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부산연극제에서는 지난해까지 '창작 초연'으로 제한했던 경연부문의 참가 조건을 '개막 1년 이내의 부산 작가가 쓴 작품'으로 완화하면서 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7개 극단이 참가한 경연부문에서는 교육극단 이야기 '몽훈', 극단 연 '계들의 세상', 극단 이그라 '베포도업침', 극단 세진 '나비가 된 꿈' 등 4편을 제외한 극단 시나위 '이순신은 살아있다', 극단 더블스테이지 '나비', 극단 배우창고 '나는 채플린이 아니다' 등 3편은 지난해 하반기 무대에 올려졌던 작품으로, 연극제를 통해 다시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 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은 오는 6월 대구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연극제 부산대표로 참가하며, 극단 단원 2명에게는 해외 연극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는 해외연수 특전을 제공한다.

갈수록 대형화되어 가는 연극제작 환경 속에서 소극장 연극만이 지니는 즐거움과 매력을 느끼게 해줄 자유참가부문에는 올해 극단 아로새긴 '점과 점을, 잇는 선, 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빛에 대해'를 비롯해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필경사 바틀비', Arte June '몸으로 이야기하다', 극단 연 '오필리어', 극단 세진 '지니스토리-새로운 언어', 극단 자유바다 '웃이 웃다' 등 6개 작품이 참가한다. 경연을 통해 우수팀에게는 부산의 독립운동가이자 예술가로 이름을 떨친故 한형석 선생과 부산을 대표하는 배우 전성환 선생의 이름을 딴 '한형석 연출상' '전성환 연기상'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 부산연극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연극제'로, 시민 참여 확대에 주력한다. 아마추어 연극인이 참여하는 '부산시민연극제'는 올해 을숙도문화회관과 MOU를 체결, 무대 뿐 아니라 참가팀에게 연습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예년보다 큰 규모로 운영되며, 4월 21일부터 23일, 28일부터 30일까지 펼쳐진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시민기자단'은 부산연극제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 역할을 수행하며, '거리의 예술가'를 통해서 연극인들이 거리에서 직접 시민들과 만나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며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2017 부산연극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3월 31일 저녁 7:30, 시상 및 폐막식은 4월 22일 저녁 8: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PARTICIPATING

ART WORK

경연참가작

교육극단 이야기 '몽훈' (작/남혜진, 연출/박현형)

3월 31일(금) 오후 8:00, 4월 1일(토)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조선시대 시와 사랑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여류 시인 이옥봉의 삶을 그린 작품.

어려서부터 시 짓기를 좋아하는 옥봉은 옥천 군수인 아버지 이봉이 가끔 집에 한양의 선비들을 불러 글을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늘 함께하며 시를 짓는다. 어느 날 옥봉은 자주 함께하던 선비 조원에게 연모의 정을 고백하지만 거절당하고, 아버지 이봉의 간청으로 조원의 소실로 들어가게 되면서 '금시맹세', 시를 짓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는데...

극단 시나위 '이순신은 살아있다' (작, 연출/김동현)

4월 3일(월)~4일(화) 오후 8: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정부패와 비리, 무능으로 얼룩진 사회권력층을 고발하고 이에 맞서 정정당당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소망을 그려낸 작품.
어느 날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무너진다. 시민들은 충격에 빠지고 정치인들은 양쪽으로 갈라져 싸운다. 이순신 동상이 무너진 이유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광화문 광장으로 찾아가던 고등학교 학생 영재는 이순신 장군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하는데...

극단 연 '계들의 세상' (작/전혜림, 연출/오정국)

4월 6일(목)~7일(금) 오후 8: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 '우리가 보고 믿는 것들이 모두 진실일까'라는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 작품.
평화로운 마당. 마당에 자리한 닭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닭들이 있다. 출신도 종도 다른 계들이 모였지만 평화유지를 위해 자신들만의 규칙을 세우고 다툼과 불편 없이 지낸다. 그 사이 닭들은 성장하고 닭장 밖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는데, 과연 그들의 규칙은 잘 지켜질 것인가...

극단 세진 '나비가 된 꿈' (작/신은수, 연출/김세진)

4월 12일(수)~13일(목) 오후 8: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사초를 적는 사관들의 일상성 속에서 '역사는 무엇인가'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 사초를 바탕으로 실록을 제작하는 사관인 성삼문, 신숙주, 하위지, 박팽년은 어느 날처럼 서로 즐겁게 실록 편찬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사초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고 급기야 실록 편찬을 감독하는 김종서 대감의 기록까지 오류가 생기면서, 안평대군 편에서 세력을 키워 권력을 붙잡으려는 야심을 가진 김종서와 그에 못지않은 기운을 가진 수양대군 사이에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극단 더블스테이지 '나비' (작/김지숙, 연출/김동민)

4월 15일(토)~16일(일)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역사의 질곡 속에서 무참히 짓밟혔던 여인들의 비참하면서도 슬픈 이야기. 청나라의 진인한 만행이 조선 땅을 헤집고 지나간 1683년 3월 어느 날, '오랑캐에게 정절을 더럽힌 환향녀와의 이혼을 허가해달라'는 상소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고심하던 인조는 궁여지책으로 묘안을 짜내는데...

극단 이그라 '베포도업침' (작/심상교, 연출/최성우)

4월 18일(화)~19일(수) 오후 8: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제주도 곳의 한거리를 지칭하는 '베포도업침'은 땅과 하늘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서 인간이 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내용으로, 이 작

품에서는 정조가 백성을 위해 새 세상의 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계획을 일컫는다. 수원화성이 거의 축조되어 베포도업침 계획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 노론과 벽파에서는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자객을 보내 정조를 살해한다. 정조의 마지막날, 정조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유령을 만나 자기 계획을 말하고 사도의 명복을 비는데...

극단 배우창고 '나는 채플린이 아니다' (작, 연출/박흥영)

4월 21일(금) 오후 8:00, 22일(토)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전제 아래 희극배우 채플린과 한국전쟁을 접목시킨 무대.
남북전쟁이 시작되던 그때, 극단 여명 단원들은 단장의 지휘 아래 찰리 채플린을 주인공으로 한 연극을 준비한다. 그러던 어느날, 무수히 떨어지는 포탄 소리에 놀란 단원들은 연극을 중단하고 피난길에 오르고 갑자기 들이닥친 적들의 고함엔 단원들은 하나둘씩 포박 당한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피난의 고행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참가작

극단 아로새김 '점과 점, 잇는 선, 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빛에 대해'

4월 13일(목)~14일(금) 오후 8: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작/후지타 다카히로·번역/고주영·연출/최용혁)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필경사 바틀비'

4월 19일(수)~20일(목)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작/허먼 멜빌·각색, 연출/최은영)

Arte June '몸으로 이야기하다'

4월 20일(목)~21일(금) 오후 8: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작/이강현, 차수빈·연출/김정숙)

극단 연 '오펠리에'

4월 22일(토) 오후 7:00, 23일(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작/신은수·연출/오정국)

극단 세진 '지니스토리-새로운 언어'

4월 25일(화)~26일(수)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작, 연출/김세진)

극단 자유배다 '웃이 웃다'

4월 30일(일) 오후 6:00, 5월 1일(월) 오후 8: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작, 연출/정경환)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춘음악회 새봄의 클래식



◆ 신설령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7년 새봄을 여는 연주의 시작은 롯시니의 '빌헬름 텔' 서곡이었다. 이 곡은 서곡으로서도 독특하게 새벽, 폭풍, 목가, 스위스군의 행진 등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첼로 솔로로 시작하여 중주로, 합주로 나아가며 서곡의 주제들을 한 장면씩 불러 오는 연주였다.

두 번째 곡은 이날 연주에서 특히 기대를 가졌던,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협연하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1악장이었다. 첫 타건부터 깊은 울림을 주며 시작한 그는 이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러시아적 색채가 물씬 풍기는 음악 속으로 청중을 이끌었다.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현란하게, 때로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을 뚫고 나올 듯한 강렬함으로 연주하는 이진상. 그는 진지함과 서정성, 격렬함과 섬세함을 두루 표현하며 짧은 연주 시간에도 청중에게 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그런데 이진상의 연주를 들으며 협주곡 연주의 경우 오케스트라는 협연자를 어느 정도 배려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오케스트라와 독주자가 함께 만들어내는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음량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라흐마니노프의 서정성 짙은 음악을 관현악의 웅장한 사운드로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협주곡에서 피아노로 연주되는 부분 또한 집중해서 듣기를 원한다. 이때 관현악과 독주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관건이다. 리허설 때 이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진상의 피아노 협연을 들으며 한 악장만으로 그치기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 연주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제4악장만 연주한다. 4악장은 변주곡 형식의 곡이다. 변주곡의 주제

가 트럼펫, 첼로 등 여러 악기로 거듭 나타나 듣기가 어렵지 않고 흥미롭다. 이날 여러 연주곡에서 첼로 파트가 많은 부분을 멋지게 연주하였고, 서진 지휘자는 에너지 넘치는 열정적인 지휘로 박진감 넘치는 연주를 이끌어 냈다.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에서는 현악 합주의 섬세함과 세련미가 돋보였다. 마지막 곡은 차이코프스키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이 곡 연주가 정말 좋았다. 장면 변화와 감정의 변화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듯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신춘음악회 '새봄의 클래식'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려고 했을까? 무거운 외투를 벗고 가벼운 차림으로 봄을 맞이하고 싶었을까?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멘델스존은 연주회에서 기존의 다목적 프로그램 구성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에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연주회의 주제를 제시함으로 통일성을 구현했던 것이다. 물론 연주회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통일성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주제를 생각하게 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국립부산국악원 2017 신춘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 문성철 부산대학교 강사

정유년 새봄을 맞아 부산지역 전통예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두 단체(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국립부산국악원)의 합동공연 2017 ‘아름다운 동행’이 3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다. 두 단체의 합동 공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나의 기억으로는 2014년부터 매년 한두 차례 기존의 각 단체의 특성을 살려 전통음악과 춤은 국립부산국악원이, 국악관현악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담당하는 등 두 단체의 역할을 구분해 공연하곤 했었다. 이전의 합동공연들은 기존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립부산국악원에서 볼 수 있는 무대들이어서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합동공연이란 의미가 조금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무대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70여 명과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단원 30여 명이 한 무대에 올라 진정한 의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부산국악원의 합동공연이라고 할 수 있었다.

1부에서는 권성택 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의 지휘로 전통에 기반을 둔 무용, 해금, 태평소 협주곡이 연주되었다. 첫 곡은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을 소재로 한 박영란 작곡, 새로운 21세기 동래학춤 ‘국악관현악, 구름, 무용을 위한 동래학춤:은빛 날개의 꿈’을 오상아(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 안무,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원, 무용단원의 구름과 춤, 국악관현악으로 어우러졌다. 두 번째 곡은 하와이대학교 교수 토마스 오스본이 한국 시조의 각장을 모티브로 작곡한 ‘해금협주곡 Verses’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 수석단원 방병원 씨의 협연으로 연주되었고 1부 마지막 곡은 서용석류 태평소 시나위를 국악관현악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재구성한 계성원 편곡의 ‘서용석류 태평소 시나위와 관현악’이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원 이종철 씨의 협연으로 이어졌다.

2부에서는 이정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관객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이 연주되었다. 2부 첫 곡은 ‘매화가’를 토대로 임에 대한 그리움과 낮은 봄을 묘사한 계성원 곡 ‘매화 봄 향기속으로’를 가야금, 생황, 해금, 거문고, 아쟁, 대금, 피리 등 국악기가 순차적으로 대화하듯 국악관현악으로 표현했으며, 2부 두 번째 곡은 소리꾼 김용우와 함께하는 국악관현악으로 류형선 편곡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김만석 편곡의 ‘장타령’을 연주했다. 마지막 곡은 우리나라 각 지방의 대표적인 민요 한강수타령(경기도), 몽금포타령(황해도), 천안삼거리(충청도), 강원도 아리랑(강원도), 농부가(전라도), 밀양아리랑(경상도), 진도아리랑(전라도), 너영나영(제주도)을 엮은 이준호 편곡 ‘팔도민요 연곡’으로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로 신춘음악회를 마무리 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부산국악원의 합동공연은 기존의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100여 명의 웅장한 관현악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대의 음향이나 조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면 100여 명의 국악관현악이 관객들에게 더욱더 웅장하고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 같다. 다음 합동공연에서는 100여 명 규모에 어울리는 신선한 선곡과 균형 있는 음향으로 관객들에게 국악관현악의 진수를 느끼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제40회 UKO오케스트라 사랑나눔 음악회

일 시 4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UKO 010-3863-3087



지난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니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United Korean Orchestra, UKO)가 마련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 전문 연주자 120여 명으로 구성된 UKO는 그동안 음악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해왔다.

프로그램

로시니/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하비네라'
베토벤/삼중협주곡 다장조 작품 56 1악장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6번 작품 54 등

- 지휘/이기균
- 피아노/조현선
- 메조소프라노/양송미
- 첼로/이명진
- 바이올린/임재홍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메디 '아비'

일 시 4월 4일(화)~15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3, 3125



300억 유산을 두고 펼쳐지는 웃음과 눈물의 코믹 휴먼연극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아비'.

극작가이자 연출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광택의 극본을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박종필이 연출을 맡은 연극 '아비'는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싼 부모와 자식과의 갈등을 사실적이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돈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현대사회에서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해가는 '효'의 정신과 메말라가는 '가족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 작/김광택
- 연출/박종필(예술감독)
- 출연/이혁우, 이현주, 황창기, 김은옥, 김은희, 오희경, 정향심, 서보기, 엄지선
- 무대감독/정순지
- 안무/김은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5회 정기연주회 김봉미 수석지휘자 취임기념 'Symphony No. 5'

일 시 4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7



2017년 신임 수석지휘자로 임명된 지휘자 김봉미의 취임 기념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올해 두 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베토벤,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트럼펫 안희찬과 메조소프라노 추희영, 테너 김충희의 협연으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비롯해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장 바티스트 아르방의 '베니스 축제를 주제로 한 환상변주곡, 비제 오페라 '카르멘'의 주옥같은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 장 바티스트 아르방/베니스 축제
-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하비네라'
-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등
- 지휘/김봉미(수석지휘자)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노자와 베토벤 '희로애락(喜怒哀樂) -I. 희(喜)'

일 시 4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초중고 및 대학생, 단체 20인 이상 30% 할인, 4개공연 동시구매 30%, 3개공연 동시구매 25%, 2개공연 동시구매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클래식과 철학의 만남으로 많은 호응을 받아온 '2017 노자와 베토벤',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2017 노자와 베토벤'에서는 마에스트로 오종근 씨가 이끄는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건명원 초대원장으로 있는 '우리시대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가 출연,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치유와 공감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2017 노자와 베토벤'은 이번 무대에 이어 6월 10일 '로(怒)', 9월 30일 '애(哀)', 11월 11일 '락(樂)'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충무공탄신 472주년 기념 호국음악회

일 시 4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해군작전사령부 679-6622



충무공탄신 472주년을 기념해 해군작전사령부가 마련하는 호국음악회. 1946년 창설 이래 한국 관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군악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해군군악대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군악대장 임종석 대위가 지휘하고 Mnet 보이스코리아 준우승자인 가수 유성은을 비롯해 국악인 이희정, 전통예술단 '훈', 해군교육사령부 국악대, 해군진해기지사령부 B-boy팀이 출연, 충무공탄신 472주년을 기념해 명량해전을 모티브로 나라사랑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곡과 영상으로 표현한 '명량', 정교한 짜임새와 다양한 퍼포먼스를 연출한 해군마칭 등을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윤동주 시에 의한 합창음악회 '윤동주...그 순결한 정신을 기억하며'

일 시 4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2017년 시인 윤동주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부산시립합창단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 '윤동주...그 순결한 정신을 기억하며'.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윤동주 시에 의한 합창음악회'로, 시인 윤동주가 남긴 그의 대표적 시에 부산의 중진 작곡가 12명이 곡을 붙인 창작 합창곡을 부산시립합창단만의 색깔있는 무대로 선사한다.

- 지휘/전진(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 작곡/김수진, 양성남, 황장수, 진소영, 백승태, 정수란, 최석태, 김보훈, 김인철, 최삼하, 조영운, 안일웅
- 특별출연/스프라이도 이지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8회 정기연주회 조숙한 천재들, 그리고 그들의 걸작

일 시 4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천재적인 음악신동으로 유명한 작곡가 모차르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걸작들로 꾸며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8회 정기연주회,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고 국내 최정상의 피아니스트 강충모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엘가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 중 '라르게토'를 시작으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작품 466', R. 슈트라우스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라는 이렇게 말했다' 작품 30을 들려준다. 21세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젊은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는 지휘자 최수열은 2013년 차세대 지휘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제회 지휘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 참가자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이듬해인 2014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선임됐다.

- 객원악장/김동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8회 정기연주회 아름다운 동요의 세계 '친구들이 모여라'

일 시 4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 3170~1)



싱그러운 봄의 기운을 담은 창작동요로 마련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7년 첫 정기연주회 '친구들이 모여라'. 창작동요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동요사랑회'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엄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불러보는 자리로, 회장 류지원의 창작곡 '푸른 바람 흰 구름에게'를 시작으로 고희영 곡 '바다', 김정훈 곡 '학교 가는길', 오영철 곡 '꾸꾸는 봄', 오희섭 곡 '토닥토닥'과 원로 작곡가 신진수 선생의 '친구들이 모여라' 등 신작 창작곡, 우리 귀에 익은 유명 창작 동요 '오륙도'(박봉렬 곡), '마음이 이슬처럼'(신진수 곡), '기차를 타고'(김태호 곡) 등을 들려준다.

- 지휘/이건문(수석지휘자)
- 지도/이영옥(반주), 김양자(성악), 노금선(무용)
- 찬조출연/화명초등학교 꿈이소리합창단, 조이엘리중창단, 정관중창단
- 반주/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

김경수 제5회 피리 독주회 바람의 흐름 V '자유 속의 질서'

일 시 4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김경수 010-5481-8612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창원국악관현악단 음악감독 겸 지휘자,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리주자 김경수의 다섯 번째 독주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 및 동 대학원 석, 박사 과정을 졸업한 김경수는 지난 2010년 제1회 독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바람의 흐름'이라는 타이틀로 독주회를 열어오고 있다.

- 프로그램**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피리/김경수, 소금/조은경, 장구/송강수)
가야금 병창/단가 중 '명기명창', '홍보가' 중 '유색황금눈(가야금 병창/김미선, 교수/송강수)
서용석제 한세현류 피리산조(피리/김경수, 장구/송강수)
김석출제 태평소 산조(소금/김경수, 교수/송강수)
● 장구/송강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 가야금 병창/김미선(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예술감독)
● 소금/조은경(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38회 정기연주회 Ludwig van BEETHOVEN 'Eroica 영웅'

일 시 4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010-2323-6589



지난 2009년 7월 창단된 후 폭 넓은 활동을 펼쳐오다 지난 2013년부터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어오고 있는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홍성택의 지휘로, 악성 베토벤의 걸작들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에로이카'를 비롯해 '에그먼트 서곡', 그리고 베토벤이 남긴 가장 독특한 형태의 협주곡이라는 평을 듣는 '트리플 콘체르토 작품 56'을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첼리스트 이동열, 피아니스트 박정국의 앙상블로 들려준다.

- 예술감독, 지휘/홍성택
- 협연/임병원(바이올린), 이동열(첼로), 박정국(피아노)

2017 닥터스 심포닉 밴드 제16회 정기연주회

일 시 4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당일 선착순 입장)
문 의 총무 이국희 010-9458-9258



지난 1999년 부산지역 의사, 치과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한 닥터스 심포닉 밴드의 2017 정기연주회, 지휘자 정홍기가 지휘하고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한 장르 구분 없이 영화음악,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을 관악 심포닉 밴드라는 독특한 편성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프로그램**
Under The Double Eagle March, Palladio, A Festival Prelude,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Santana A Portrait, Frontier, Uptown Funk(연주/Doctors Big Band), Tears In Heaven, Theme From Schindler's List, Czardas(연주/백재진), Eagles Medley 등
● 지휘/정홍기
● 바이올린/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세상을 깨우는 '우리의 음악' 행복나눔 콘서트

일 시 4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국악의 신명과 아름다운 노래가 만나 행복을 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세상을 깨운 우리의 음악 행복나눔 콘서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 하모니카 연주자 박기국, 테너 문지훈, 소프라노 박현정, 가수 김현영, 부산시립합창단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창작국악관현악에서부터 국악가요, 대중가요, 오페라 아리아, 창작합창곡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 프로그램**
김성국/국악관현악 '아름다운 세상'
국악가요/사할기, 쑥대마리, 시냇물방가
백규진/타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희망은 자란다' 등 수곡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러시아 국립 볼쇼이합창단 내한공연

일 시 4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M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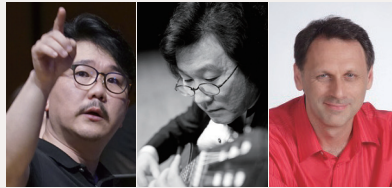
광활한 대지의 울림을 들려주는 세계 최고의 합창단 '러시아 국립 볼쇼이합창단' 부산공연.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최고의 합창단'으로 극찬한 러시아 국립 볼쇼이합창단은 지난 1928년 모스크바 국영방송국의 전속합창단으로 창단된 후 오랜 전통 속에 슬라브 특유의 깊은 원숙함과 저음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하모니로 세계 음악팬들을 매료시켜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카치니, 구노, 슈베르트, 피아졸라, Illya Patriarch, 생상 등 유명작곡가들의 '아베마리아'를 한 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러시아 민요를 비롯해 한국가곡, 월드뮤직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레프 칸타로비치

제39회 한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4월 25일 화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단장 김형욱 010-9044-7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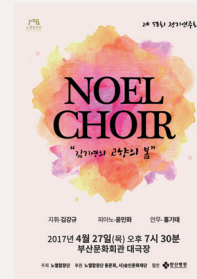
1978년 창단 이후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혼성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한 한울림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지난 2005년 부산광역시로부터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한울림합창단은 그동안 '다시 부르는 거리의 노래' 전국 5개 도시 순회연주회를 비롯해 창작연가곡 '아름다운 부산', 윤이상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조연 주관, 광복60주년 기념 아시아 한마당, 한형석 항일음악회(중곡 북경 국립중앙음악원)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상임지휘자 김창돈이 지휘하고 클라시카티리스트 고종진, 트럼펫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가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새봄을 노래하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찬조출연/소프라노 권순우
- 피아노/전해란

노엘합창단 제58회 정기연주회
김기영의 '고향의 봄'

일 시 4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노엘합창단 010-5796-1115



창단 50년이 넘는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합창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노엘합창단의 제58회 정기연주회. 지난 1961년 부산지역 크리스찬 남녀 고교생들로 창단된 성가합창단으로 오랜 역사를 이어오다 1999년 노엘 동문들과

함께 성인합창단으로 재조직된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노엘합창단은 2011년 창단 50주년을 맞아 전국 청소년합창축제를 개최하며 부산지역 합창문화를 이끌어왔다.

아름다운 봄날,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상임지휘자 김기영의 지휘로 재미작곡가 김기영의 합창조곡 '고향의 봄'을 합창과 오케스트라, 무용단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로 꾸민다.

- 지휘/김기영
- 피아노/윤민화
- 안무/홍기태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월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II -바그너 편-

일 시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초, 중, 고, 대학생, 다자녀가족, 문화예술 인파스 소지자 30% 할인, 학생단체 20명 이상 1인 5천원, 3회 동시구매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월빙콘서트' 두 번째 무대 '오페라 이야기-바그너 편'.

3월 '베르디'에 이어 이번 무대에서는 베르디와 더불어 19세기 오페라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작곡가 바그너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소프라노 박현주, 테너 김준연의 협연으로 바그너 오페라 '탄호이저' 서곡을 시작으로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로엔그린',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유명 아리아와 관현악 '지그프리드 목가'를 들려준다.

양성식 & Erato Ensemble 한·일 앙상블의 밤

일 시 4월 29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이 음악감독을 맡아 지난 2011년 창단한 에라토 앙상블(Erato Ensemble) 부산공연.

에라토 앙상블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함께 환상적인 하모니로 클래식음악의 정수를 선보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실내악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도쿄 스트링스, 히버키 스트링스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오늘날 일본에서 가장 두드러진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거주키 사와, 포르투갈 국제음악콩쿠르 2위, 독일 Alois Kotmann상 수상, 이태리 A.Qurci 콩쿠르 3위, 오스트리아 모차르티움 Ruggiero Ricci 콩쿠르 3위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윤여영과 함께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2017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일 시 5월 1일(월)~3일(수) 오전 10:30~오후 5:00
소극장 및 광장
입장료 무료(가족인형극 '옛날 옛날에' 전석 2천원)
문 의 부산시립극단 607-3123, 3125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하는 부산시립극단 '2017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5월 1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및 광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극에서부터 인형극, 마술쇼, 가면 만들기, 손가락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까지 온가족이 함께 보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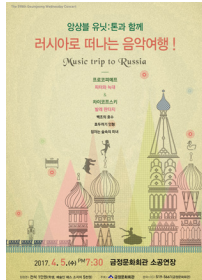
부산시립극단의 가족인형극 '꼬마 도깨비 깨비의 옛날 옛날에'에 이어 어린이극단 '끼리프로젝트'의 어린이 뮤지컬 '모해? 모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공연 '환상의 나라로' 등도, 부산시립무용단의 춤추는 동화 '개굴개굴 청개구리', 부산시립극단관현악단의 신명나는 국악동요까지 다채로운 공연들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음악 | Music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저녁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26일 '문화가 있는 날'
일반 7천원, 청소년 3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5일 앙상블 유닛톤과 함께 러시아로 떠나는 음악여행



음악여행

- 편곡/황선영
- 발레/최여경
- 나레이터/임승지

12일 피아노 플러스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꾸준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신애정, 이윤정, 성민주의 무대. 라흐마니노프의 'Romance', 피아졸라의 'Border 1900', 슈미트의 'Memory-Tango' 등 로맨틱한 클래식 음악과 감수성 짙은 탱고 음악을 피아노 듀오 연주로 들려준다.

19일 앙상블 오엘 초청

베이스 조창현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한은희, 박혜원, 비올리스트 김지원, 첼리스트 김영지, 피아니스트 민유숨으로 구성된 '앙상블 오엘'과 중후한 감동을 전하는 베이스 조창현이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비발디의 '봄', 안송필의 '현악 4중주 제1번 수호', 슈베르트, 슈만 등의 독일가곡, 모차르트, 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음악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26일 플루트앙상블 아리스 디버 제3회 정기연주회



플루티스트 정옥경, 조진학, 김성은, 강선아로 구성된 아리스 디버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R. 귀요 '디베르티멘토 재즈', E. 보자 '여름 산의 하루 작품 6' 등 플루트가 가진 청아하고 섬세한 음색을 만끽할 수 있는 플루트 연주곡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이일세의 협연으로 오펜바흐 '자클린의 눈물'을 들려준다.

제44회 이태리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베르디의 노래

일 시 4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이태리음악연구회 010-5239-2749



이태리에서 공부한 부산의 성악가,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이태리음악연구회의 정기연주회. 1987년 부산 최초의 유학파 음악단체로 설립된 이태리음악연구회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이탈리아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다.

'베르디의 노래'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이탈리아가 낳은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의 대표 오페라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구현진, 김시하, 박연경, 왕기현, 이윤정
- 메조소프라노/성미진, 이지영
- 테너/김경민, 김성배, 양승엽, 정거화
- 바리톤/고영호, 김기환, 김길수, 박찬
- 피아노/안선애, 윤민하, 전은영, 최승희

3인 음악회

일 시 4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최정윤 010-8874-9333



부산예술중학교 3학년 전재승과 부산예술고등학교 1학년 채정빈, 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 윤승익 등 차세대 유망주들이 그동안 음악수업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무대.

전재승은 제1회 경남유·청소년 문화경진대회 특별상, 제1회 김해시 유·청소년 문화예술 음악경연대회 대상을, 채정빈은 동주대학교 총장상(2013), 대구예술대학교 특별상(2013), 국제마이스터콩쿠르 대상(2014)을, 윤승익은 제24회 전국학생음악콩쿠르 초등 3학년 1위, 제20회 현대음악경연대회 피아노부문 동상, 제1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 초등부 동상, 2012 경성대학교 음악콩쿠르 우수, 제31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피아노 경연대회 중학생부 우량, 제30회 동백대상 국제음악콩쿠르 2등을 수상한 바 있다.

스페이스 움 음악회

일 시 4월 5일(수), 14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5:00, 28일(금)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입장료 전석 1만원(차 포함)
문의 스페이스 움 557-3369, spaceum.trocks.kr



목요일마다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던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움이 새롭게 시작하는 스페이스 움 음악회 4월 무대.

5일 The Bird Fusion Jazz Band

- 색소폰/이상하
- 기타/김준오
- 키보드/김태수
- 드럼/조규원

14일 정소영 피아노 트리오

- 연주/정소영(피아노), 김은아(바이올린), 이승희(첼로)

22일 슈베르트 렉처 콘서트

- 연주/박필은, 김진희(피아노)

28일 Daydream Book Concert '다산 정약용의 시대정신' 드라마 '겨울연가' 작곡가로 알려진 데이드림(Daydream) 연세영의 북 콘서트. 다산 정약용의 삶을 소설화한 그의 역사소설 '치왕'에 대한 얘기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들려준다.

제4회 예그린합창단 정기연주회 희망의 봄을 노래하다

일 시 4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예그린합창단 010-3869-6481



합창음악을 통해 멋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된 여성합창단 예그린합창단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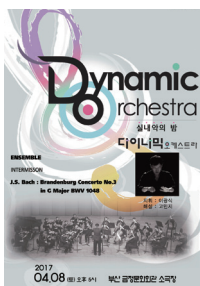
'아름다운 옛 추억을 잊지 말고 간직하자'는 의미로 이름 붙인 예그린합창단은 지난 2007년 창단한 후 이듬해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정기연주회, 사랑의 음악회, 부산합창제, 부산국제합창제, 부산트리축제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 지휘/손욱
- 반주/이영숙
- 안무/박보희
- 특별출연/해피올리브나무 합창단(지휘/이재란), 금성하모니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다이나믹오케스트라 실내악의 밤

일 시 4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다이나믹오케스트라 010-8258-0706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실력있는 현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실내악단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력을 쌓으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는 다이나믹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실내악의 밤.

지난 2015년 4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이자 IPB 대표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광석이 상임지휘자로, 인제대학교 교수이자 IPB 음악감독으로 있는 첼리스트 양욱진이 음악감독을 맡아 창단한 다이나믹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바이올린듀오, 첼로파르테, 바이올린파르테, 스트링파르테 등 다양한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이광식
- 음악감독/양욱진
- 해설/고민지

우다연 귀국 색소폰 리사이틀

일 시 4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에브리 국립음악원과 파리국립 음악원을 졸업한 색소포니스트 우다연 귀국 독주회.

귀국 후 아트뱅크코리아 기획연주 '슈만의 애상'에 출연하면서 국내 활동을 시작한 우다연은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양산시립윈드오케스트라 등 수많은 오케스트라의 객원연주자로 활동하며 전문 연주자로서의 역량을 다져오고 있다.

프로그램

- 슈만/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작품 70
- Fernande Decruck/Sonate en Ut#
- 윌리엄 올브라이트/색소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 슈베르트/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등
- 피아노/박정희(동아대학교 교수)

2017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센스 앤 센스빌리티

-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피아니스트 김다솔

일 시 4월 11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노부스 파르테의 카리스마 넘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실내악 역사를 새로 썼다고 평가받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과 2014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이자 최근 뉴욕 필 협연자로 활약이 두드러진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앙상블을 감상할 수 있는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영국의 작가 제인 오스틴의 동명 소설 '센스 앤 센스빌리티'라는 주제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멋진 연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그리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3번
- 라벨/치건느

제50회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봄을 향한 사랑의 릴레이

일 시 4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독일가곡연구회 010-2692-3856



지난 1987년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나라에서 유학한 음악인들로 창단한 독일가곡연구회의 50번째 정기연주회.

독일가곡연구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통해 독일 가곡을 보급하고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 후학양성에도 힘써오고 있다.

봄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이번 무대에서는 멘델스존 '봄' 작품 7-3, 슈베르트 '가니메드', R스트라우스 '세레나데', J.스트라우스 2세 '봄의 노래', 베토벤 '아델라이데' 등 봄에 어울리는 서정적인 가곡과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 전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김현주, 미인희, 정해민
- 테너/김기형, 김준연, 김지호, 김현식, 신대현, 이은민, 임성규
- 클라비어/김경미, 박소미, 성민주, 임호진

아컴퍼니 챔버앙상블 창단 연주회 해설이 있는 음악회 '벚꽃 엔딩'

일 시 4월 13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아컴퍼니 챔버앙상블 010-5246-5651



피아니스트 생아람, 장서희, 바이올리니스트 안은탁, 나리, 비올리니스트 윤솔샘, 첼리스트 이가은으로 구성된 아컴퍼니 챔버앙상블 창단연주회.

러시아어로 앙상블을 뜻하는 'Анса·мбль'와 '동행하다', '피아노 반주를 해주다'의 뜻을 지닌 'Accompany'를 합쳐 만든 아컴퍼니(A.Company) 챔버앙상블은 앞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로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벚꽃 엔딩'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중 '아침, 아니트라외 춤, 솔베이지의 노래, 산의 미왕의 전당에서', 리스트 '헝가리 랩소디 2번'을 Piano 4Hands로, 비발디 '봄'과 슈베르트 '판타지아 D.940'을 Piano 4Hands와 String(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악기 편성으로 들려준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2017 백건우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 프로젝트 in 부산

일 시 4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5만원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지난 2007년, 예순한 살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32곡) 마라톤 리사이틀을 완수한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가 10년 만에 다시 연주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연주회.

2007년 베토벤 이후 메시앙(2008년), 리스트(2011년), 슈베르트(2013년), 스크랴빈, 라흐마니노프(2015년)로 연구 대상을 옮기며, 그때마다 혼신의 힘으로 작곡가의 내면을 깊게 파고들었던 백건우는 2017년 일흔한 살의 나이로 베를린 필 초대 지휘자였던 한스 폰 뷔로가 '피아노의 신약성서'라 칭했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제3번, 제5번, 제12번, 제14번을 들려준다.

위드스트링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일 시 4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위드스트링앙상블 010-7565-0280



바이올리스트 김성은과 첼리스트 이재성을 주축으로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로 창단된 위드스트링앙상블의 9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08년 10월 금정수요음악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 외에도 아동시절과 모자시절, 병원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음악사랑을 펼쳐온 위드스트링앙상블은 그동안 실내악의 활성화에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열린 클래식음악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Korean Dream Sinfonietta, 솔리스트 앙상블 'figo', 아르카뎬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안은미의 협연으로 로시니와 모차르트, 스페타나의 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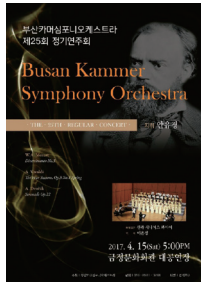
- 협연/안은미(바이올린)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제25회 정기연주회

일 시 4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010-8511-3768



소년의 집 알로이시오 관현악단을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성장시킨 지휘자 안우경이 지난 1992년 창단한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의 25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고전파의 곡들과 다양한 현악합주곡을 주 레퍼토리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제3번

비발디/사계 중 '봄'

임공수/사랑하는 마음

김귀자(편곡)/라 스파뇨라, 돌아오라 소렌토로

오 솔레미오

드보르작/세레나데 작품 22 등

- 지휘/안우경
- 특별출연/신라 시니어스 콰이어(지휘/이은정)

리에또 트리오 7번째 정기연주회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with, 리에또트리오

일 시 4월 15일 토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리에또 트리오 010-5612-2360



피아니스트 김문주, 바이올리니스트 윤지현, 첼리스트 정고른으로 구성된 리에또 트리오의 7번째 정기연주회. 이태리어로 '행복함'이라는 뜻을 지닌 리에또(Lieto) 트리오의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찾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느끼는 기쁨과 행복함을 공유하기 위해 결성됐다.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with, 리에또트리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변진섭, 김광석, HOT, 이문세, 노사연 등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그때 그 시절 사랑받았던 가요를 연주함으로써 추억의 그 시절로 관객들을 이끈다.

세월호 3주기 추모음악회

일 시 4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카아트홀

입장료 초대

문의 우리아트 920-9545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희생자를 냈던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된 영혼과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하는 추모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비눗방울 같이 덧없이 죽어간 가여운 넋을 기리는 고은하 시인의 추모시에 작곡가 임채일의 곡을 불인 추모곡 '비눗방울'을 비롯해 브루흐 '콜 니드라이(신의 날)', 그리운 그대, 나를 잊지 말아요, 무덤에 가까이 오지마라, 백합, 내 영혼 바람 되어 등 음악을 통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다.

- 예술감독/전상철
- 플루트/오영인
- 소프라노/장은영
- 바리톤/최성규
- 피아노/이승윤, 최지선
- 피아노 듀오/허준혁, 송예진
- 합창/The올림피아어
- 바이올린/원아름
- 테너/조윤환
- 베이스/박상진

무지카비바앙상블 제26회 정기연주회 무지카비바 '헌정' -바로크&TODAY

일 시 4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무지카비바앙상블 010-9336-2687



지난 1998년 창립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결성된 무지카비바 앙상블의 26번째 정기연주회.

'바로크시대로의 여행' 세 번째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바로크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바흐가 그를 후원하는 황제와 백작들에게 '헌정'한 곡들과 현대를 잇는 음악회로 꾸며진다.

- 음악감독, 리더/박경희
- 바이올린/오근영
- 첼로/전명희
- 플루트/이희영
- 해설/전명희
- 비올라/박주연
- 피아노/서혜리
- 작곡/하순봉

해운대교회 연합 성가대와 함께하는 울산크리스찬색소폰오케스트라 부산공연

일 시 4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울산크리스찬색소폰오케스트라 010-3839-0275



찬양을 목적으로 색소폰을 연주하는 크리스천으로 구성된 울산크리스찬색소폰오케스트라 부산공연. 지난 2013년 3월 창단한 후 매년 한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울산수정교회, 연양제일교회, 울산만평교회, 울산대흥교회, 울산한빛교회, 울산서현교회 등 교회 초청 찬양연주회를 가져온 울산크리스찬색소폰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해운대교회 연합성가대와 함께 부산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소프라노 김현주 독창회

일 시 4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Tradizionale, Biennio 과정, 밀라노 국립음악원 음악코치과정을 졸업하고 오페라 '리골레토' 질다 역으로 데뷔 무대를 가진 후 이태리, 스페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온 소프라노 김현주 독창회.

그동안 우크라이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헤럴드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MBC BMPO 오케스트라, 국제신문 KPO 오케스트라, 충남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가져온 김현주는 오페라 선비의 주역으로 한국 오페라 최초로 뉴욕카네기홀 무대에 섰으며, 2015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토스티, 김동진, 조두남, 벨리니, 아르디티, 슈베르트, 라흐마니노프, 발프, 베르디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최영민

김가민 비올라 리사이틀 April, 봄을 노래하다

일 시 4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김가민 010-8308-0003



풍부한 서정성과 깊이있는 음색이 매력적인 비올리스트 김가민 리사이틀.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도미,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NEC Merit Award, NEC Scholarship을 수여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과정을 졸업한 김가민은 그동안 William Hall, Keller Hall, Pierce Hall, 예술의전당 IBK홀, 숙명아트센터, 부산문화회관 등 다양한 무대에서의 리사이틀, 실내악 연주를 통해 전문연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김가민은 현재 앙상블 The Blossom, Art-o 앙상블, SOMBU TRIO 멤버로 활동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폭넓은 연주활동을 통해 음악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 헨데미트, 프랑크 브리지의 비올라 곡으로 새봄에 어울리는 중후하면서도 따뜻한 비올라 선율의 매력을 전해준다.

● 피아노/김영실

브람스 서거 120주년 기념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브람스 가곡과 앙상블의 밤 Liebeslieder Walzer 사랑의 노래-왈츠

일 시 4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박소미 010-9114-1733



브람스 서거 120주년을 기념해 브람스 가곡으로 꾸며지는 특별한 무대,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브람스 가곡과 앙상블의 밤. 소프라노 김현애,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테너 김성진, 바리톤 조규희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대명사인 브람스의 낭만가곡들과 연인들의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연가곡 '사랑의 노래 왈츠(Liebeslieder Walzer) 작품 52' 전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브람스/나의 잠은 점점 깊어지고
브람스/진실한 사랑
브람스/더 이상 너에게 가지 않으니
브람스/아, 돌아가는 길을 안다면
브람스/사랑의 노래 왈츠 작품 52 등 수곡
● 클라비어/김선영, 박소미

제59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2017년 Cellist 시리즈 II '박성완&이명진'

일 시 4월 20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2017년 Cellist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지휘자 박성완이 지휘하는 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연주와 힘찬 음색, 완벽한 기교와 대단한 열정을 지닌 첼리스트 이명진의 협연으로 중앙대학교 교수로 있는 작곡가 이한나의 창작곡 '아리랑 어우름'을 시작으로 엘가 '첼로협주곡 작품 85',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6번 작품 39'를 들려준다.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협연자 이명진은 독일 에센 플크방 국립학교, 슈투트가르트 국립학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일보콩쿠르, 독일 Folkwang콩쿠르(대상), 바르셀로나 카날스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테너 조윤환 독창회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전곡연주회

일 시 4월 21일 금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S석 5만원, A석 2만원, 학생 1만 5천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매력적인 음색과 투명한 감성으로 독일가곡의 진수를 선보여온 테너 조윤환이 마련하는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전곡연주회. 슈베르트가 시인 뮐러의 시에 곡을 붙인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는 슈베르트가 남긴 모든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총 20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윤환은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 독일 베를린 국립합스 아이슬러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라이프치히 멘델스존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 특별출연/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제17회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정기연주회

일 시 4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010-6563-6692



지난 1991년 음악대학 교수, 외래교수, 전문연주자 등 전문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한국 최대 규모의 단체인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가 마련한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피아노학회 이사장이자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인 장혜원 교수를 초청, 부산지역의 연주자들과 함께 서정성이 뛰어난 클래식 명곡과 각 세대별 작곡가들이 작곡한 한국적 가락이 표현된 창작곡을 들려준다.

● 연주/장혜원, 고정화, 박선혜, 최유희, 조현선, 김성숙, 김소형, 서혜리, 정경연, 심정연, 서숙지, 최은실, 정연희, 노귀혜, 이현욱, 박환희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이사오 사사키 '봄이 오는 소리'

일 시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섬세한 터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로 사랑받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이사오 사사키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금정문화회관 브런치 콘서트.

해마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공연의 품격을 높여온 금정문화회관 브런치 콘서트는 2017년 올해 다양한 주제와 장르, 풍부한 이야기와 함께 짝수 달 마지막 주 화요일 관객들을 찾아간다.

2017년 첫 무대에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 유명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이사오 사사키의 섬세하면서도 서정적인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지난 1999년에 발매한 첫 앨범 'Missing You'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한 음악 활동을 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이사오 사사키는 이번 무대에서 한 남자를 그리는 한 여인의 애잔한 스토리를 담은 'Sky Walker'를 비롯해, 'Always in a Heart', 'Ophelia' 등을 들려준다.

제49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재즈와 클래식의 만남

일 시 4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독우회 010-7495-0647

지난 1994년 독일 각지 국립음대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후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독우회의 47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매년 꾸준히 정기연주회와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독우회는 이번 무대에서 '재즈와 클래식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하고 재미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G. 안다스/Ragtime alla turca
브루흐/클라리넷과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8개의 소품 작품 83
골도트 볼링/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제7번 등

- 음악감독/신애정
- 해설/정경아
- 피아노/김은주, 정소영, 김유진, 강혜숙, 이효연, 장예지, 조미지, 박이연, 김문영, 윤지선, 김해리, 조아란, 강인경, 이상미, 정희경
- 클라리넷/정준화
- 바이올린/박혜련, 김한나
- 비올라/김민경
- 첼로/이현지
- 타악기/김정우

손은혜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4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유예술기획 010-9025-101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 부산신포니에타, (사)더 솔로이스츠,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 앙상블 아도, 현대음악앙상블 누벨바그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도미, 신시내티 음악대학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며 전문연주자로서의 기량을 닦아온 손은혜는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앙상블 라이덴사프트 정기연주회, 슈만 서거 160주년 기념 음악회,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등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손은혜는 그동안 솔로 및 앙상블 무대를 통해 중형 무진 활동해오면서 김해국제음악제 우수 신인연주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 음악인',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주최 '베스트뮤지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7 가영 비올라 콘서트

일 시 4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초대
문의 아트랩 CNC 010-9338-8485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 크로스오버 앙상블 '더 사운드트리' 감독으로, 장르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올리스트 가영의 무대.

2002년 Hartwick University Summer music festival 초빙교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뉴저지 Rowan University의 Faculty를 역임하고 지난 2003년 귀국한 가영은 매년 독주회를 비롯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레히 클래식 뮤직 페스티벌, 부산국제음악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예술의 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팝스 콘서트, 아나운서 이금희의 해설로 진행되는 '친절한 금희씨, 베토벤을 만나다' 전국순회 연주, 칠포국제 재즈 페스티벌, 의정부 예술의 전당 모닝 콘서트, 성남 마티네 콘서트, 예술의 전당 크로스오버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김정민

볼프강 다비드 내한공연

일 시 4월 29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아카디아 에이씨엔 010-3859-4316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비엔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요하네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욕 virtuosi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들과의 협연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바이올리니스트 볼프강 다비드 내한공연.

그동안 세계적인 음악콩쿠르에서 수차례 수상한 바 있는 볼프강 다비드는 빈 뮤직퍼라인홀, 뉴욕 카네기홀, 로스앤젤레스 세리토스센터, 클론 필하모니 등 세계 유명홀에서 연주회를 가져왔으며, 전UN사무총장 코피아난이 참석한 뉴욕 Great Assembly Hall of United Nations 콘서트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 피아노/조현선(경성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22회 정기연주회

일 시 4월 29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초대
문의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010-4842-6688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육과 운영을 맡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2001년 3월 '부산아마추어스트링스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는 부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거쳐 2006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03년 9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연 2회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는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지휘자 김정민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제2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후궁으로부터의 도주' 서곡
마스카니/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영화음악/에비타, 핑크 팬더, 시네마천국
드보르작/슬라브댄스
베토벤/교향곡 제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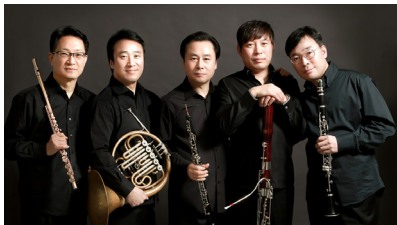
- 지휘/김정민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연극 | Play

아우라 목관5중주 제2회 연주회

일 시 5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오보이스트 박종관, 플루티스트 박찬엽, 바수니스트 전만익, 클라리네티스트 황윤원, 호른리스트 최준호로 구성된 아우라 목관5중주의 무대. 지난 2016년 창단 연주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차이코프스키의 유포레스크, 단짜의 오중주, 향수, 광화문 연가, 홀로아리랑 등 클래식에서 대중적인 음악까지를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 피아노/이은정
- 국악/강은미
- 편곡/이수은

국민연극 '라이어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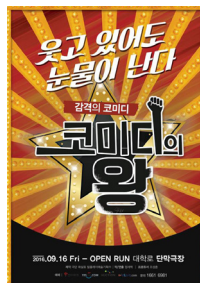
일 시 3월 9일(목)~5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3/8일까지 예매 시 1만8천원, 학생 50% 할인)
문의 (주)디오르글시어터컴퍼니 664-7880~1



영국의 극작가 레이 쿠니의 작품으로, 지난 1998년 초연된 후 지금까지 국내 최장기 오픈런 공연 기록을 세우고 있는 '라이어'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라이어 투어'. 소심한 은행원 영호의 생일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의 서류가방과 100억원이 든 야쿠자의 가방이 뒤바뀐다. 야쿠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영호와 안절무절 못하는 아내, 그 상황 속에서 영호를 의심하는 형사들이 찾아오고 이들을 따돌리기 위한 작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는데... 야쿠자의 돈가방과 자신의 서류가방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평범한 남자의 하루 동안의 해프닝을 그린 '라이어 투어'는 잠시도 눈을 떼 수 없는 긴박한 전개와 잘 짜인 연출, 모두가 놀랄만한 반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연극 '코미디의 왕'

일 시 3월 10일(금)~4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축제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템플레이예술기획(주) 1661-6981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은 후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쇼를 하게 된 어느 코미디언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코미디의 왕'.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등 사랑하는 이에 대한 사랑, 함께 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했던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옆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코미디의 왕'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관객들에게 웃음을 줘야 하는 주인공을 통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한 편의 코미디 쇼를 연상시키는 듯한 다양한 코미디 연기와 직접 전문가에게 배운 마임, 마술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로 관객들과 만난다.

- 작, 연출/정세혁
- 출연/정진혁, 이원선 임기정, 김수정, 손소라, 이가영

연극 '옥탑방 고양이'

일 시 3월 23일(목)~5월 2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03년 정다빈, 김래원 주연의 드라마로 제2차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동명의 인터넷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옥탑방 고양이'. 작가의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한 엉뚱한 시골여자 정은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차가운 도시 남자 경민이 옥탑방으로 동시에 이사를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달콤한 러브 스토리와 함께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2010년 초연무대 이후 6년 연속 연극 예매율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원작/김유리
- 작/박은혜
- 연출/김태형, 정세혁, 이지영

년별별 아카펠라 퍼포먼스 몽키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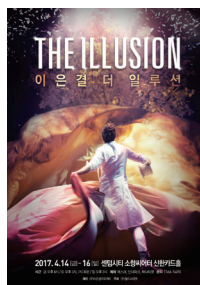
일 시 3월 31일(금)~4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지난해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BIPAF) 경연부문 '고 월드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년별별 아카펠라 퍼포먼스 공연 '몽키댄스'.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을 극적 요소에 불어넣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마살아트 퍼포먼스팀 'WINS'와 뮤지컬 컴퍼니 기리프로젝트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맨손 격투인 마살 아트와 애니멀 무브먼트를 바탕으로 한 트러킹, 스트리트 댄스, 현대무용 등 이제껏 보지 못한 음악적, 신체적 요소가 어우러진 새로운 움직임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원숭이의 움직임을 시각적 효과로 극대화시킨다.

이은결 더 일루션

일 시 4월 14일 금요일 오후 8:00, 15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6일 일요일 오후 2:00 선تم시터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환상과 감동이 공존하는 황홀한 판타지 이은결 '더 일루션(The Illusion)'. 탁월한 스토리텔러인 일루션리스트 이은결이 선사하는 '더 일루션'은 지난 2010년 초연 이후 총 900회 이상 공연, 누적 관객 90만명 이상의 경이적인 숫자를 기록하며 관객과 평단의 압도적인 호평을 이끌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화려하고 테크니컬한 마술은 물론 두 손과 빔프로젝터 한 대를 이용해 관객들을 아프리카 대자연으로 초대하는 '새도 일루션', 마술사 이은결의 피나는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핑거 발레' 등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다이내믹한 퍼포먼스와 함께 엔딩 무대 '상상의 나무'에서는 오직 '더 일루션'에서만 볼 수 있는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최고의 판타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Program Guide

부산시민회관 개관 44주년 기념 봄봄 2색 콘서트 I 홍지민과 함께하는 뮤지컬&오페라 스타

일 시 4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의 부산시민회관 630-5200



폭발적인 가창력을 지닌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성악양상을 메모리아가 출연, 뮤지컬과 오페라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홍지민과 함께하는 뮤지컬&오페라 스타'. 브로드웨이 인기 뮤지컬 넘버에서부터 깊은 울림이 있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까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이번 무대는 특히 홍지민과 성악가들의 콜라보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 소프라노/정성미, 김지현
- 테너/김주완, 박용규
- 바리톤/서동희, 오우석
- 피아노/엄주빈
- 더블베이스/장태희
- 드럼/최요셉(드럼)
- 색소폰/차민규
- 기타/이수진

무용 | Dance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감(藝感):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봉걸시어터 '경상도 아가씨'

일 시 4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입장료 초대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부산예술회관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상설무대. 4월 무대에서는 부산무용계를 짙어질 차세대 젊은 무용단체 '봉걸시어터'가 1950년대 큰 히트를 쳤던 대중가요 '경상도 아가씨'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창작춤 '경상도 아가씨'를 선보인다. 지난 2011년, 부산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한 남자 무용수들로 결성된 봉걸시어터는 그동안 이 시대의 깨어있는 정신으로 자신만의 춤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 무용의 날 기념 공연 역사의 춤, 오늘을 춤춘다

일 시 4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울속도문화회관 220-5805

2017년 을숙도 시민 연극제

일 시 4월 21일 금요일 오후 6:30, 22일(토)~23일(일), 29일(토)~30일(일) 오후 2:00, 3:00, 4:00
5월 3일 수요일 오후 3:00, 4: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연극협회 645-3759

부산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연극단체의 축제 '2017 을숙도 시민연극제'.

- 일정**
- 4/21(일) 오후 6:30 개막식
 - 4/21(일) 오후 7:00 남구노인복지관 한우물 '홍도야 우지마라'
 - 4/22(일) 오후 2:00 (사)부산색동어머니회 '개똥소똥 형제와 흥겨비'
 - 4/22(일) 오후 3:00 모래알 드라마팀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 4/22(일) 오후 4:00 교육극단 꼭두 '있는 그대로'
 - 4/23(일) 오후 2:00 오로라 '몰리의 다이어리'
 - 4/23(일) 오후 3:00 (사)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마지막 여행 그리고'
 - 4/23(일) 오후 4:00 청소년극단 아호 '한여름밤의 꿈'
 - 4/29(일) 오후 2:00 극단 시월 '기억'
 - 4/29(일) 오후 3:00 상리복지관 '소꿉놀이터'
 - 4/29(일) 오후 4:00 청소년극단 울림 '방황하는 별들'
 - 4/30(일) 오후 2:00 성동중학교 '종이배를 띄우다'

4/30(일) 오후 3:00 시민극단 배우로 배우다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4/30(일) 오후 4:00 한국연극영화아카데미 '대대손손'

5/3(일) 오후 3:00 축하공연_극단 에저도 '검정고구신'

5/3(일) 오후 4:30 시상 및 폐막식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 호비와 꼬마요정 새미의 모험

일 시 5월 5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3만 5천원(부산문화재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이괄림부산 1644-5764

어린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뮤지컬로 사랑받아온 어린이 율동뮤지컬 '호비쇼'. '호비쇼 7번째 이야기'인 '호비와 꼬마요정 새미의 모험'은 기존 캐릭터인 호비, 베니, 페로 외에도 레오아저씨, 낭이 등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과 함께 입체영상은 물론, 특수효과를 이용한 무대 연출로 더욱 화려하고 풍성해진 볼거리로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행사 | Event

월드뮤직, 세계음악기행(렉처콘서트)

일 시 3월 15일(수)~6월 14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입장료 13주 20만원
문의 최정욱 010-3853-6634

월드뮤직 음악을 중심으로 영화, 사진,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 세계 각 민족의 역사를 토대로 인문학 해설을 시도하는 렉처콘서트 '월드뮤직, 세계음악여행'.

- 기획, 해설/예필 최정욱

김옥균의 힐링클래식 음악여행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문화센터 부산본점 교양강의실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FM 목요일음악회'를 기획, 연출한 전 MBC PD 김옥균이 진행하는 클래식 영상해설강상회. 4월에는 '전설, 철학, 문학 속의 클래식음악 만나기'라는 주제로 4차례 펼쳐진다.



4월 29일 '세계 무용의 날'을 기념해 경성대학교 최은희 교수, 동아대학교 장정윤 교수, 부산대학교 박은화 교수 등 부산지역 3개 대학 무용과 교수들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역사의 춤, 오늘을 춤춘다'. 최은희와 춤배 배김새, 장정윤과 무용수들, 박은화와 현대무용단 '자유'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예술인 무용을 통해 인간 본연의 행위와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2세기 첨단을 건는 새로운 대중이 예술적 전통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Xing Meracism II(안무/장정윤, 출연/장정윤, 정기정, 박영미, 류영주, 김평수, 김유진)
호적 살풀이춤(안무 및 출연/최은희)
풍경을 노래하다(안무/박은화, 출연/박은화, 안선희, 권아름, 조현배, 이연주, 안희주, 이승윤, 이슬기, 안희주)
춤 신명(안무/최은희, 지도/허연화, 음악/남산놀이마당, 출연/허연화, 한수정, 손미라, 박수정, 최우정, 엄효빈, 이 재학생)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4월 아카데미

일 시 4월 5일(수), 10일(월), 12일(수), 14일(금), 17일(월), 20일(목), 24일(월), 27일(목) 오후 7:30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일반 1만 5천원, 학생 1만원(음료 포함)
문의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010-2774-3455

- 5일(수)오후 7:30 이수원의 시네필리아(2) 에릭 로메르의 영화세계: 자연, 일상, 그 속의 인간남녀
● 강사/이수원(영화평론가, 부산국제영화제프로그래머)
- 10일(월) 오후 7:30 내가 사랑하는 예술가(1) Caravaggio(카라바조) 영화 '카라바조'
●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북갤러리 내서재 대표)
- 12일(수) 오후 7:30 류준하의 뮤직월드(1) 뮤직투어(근대에서 현대까지) : 미하일 글린카/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미셸 파리쉬-호기 카마이클/진은숙
● 강사/류준하(음악해설가)
- 14일(금) 오후 7:30 영화의 바다에서 만난 문학(3) 셰익스피어의 삶,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
● 강사/홍옥숙(한국해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17일(월) 오후 7:30 객근수의 클래식투어(9) 슈베르트 백조의 노래
● 강사/객근수(음악평론가)
- 20일(목) 오후 7:30 촬영감독의 영화보기(3) 빛과 색, 그 오묘한 조화, 영화 '문라이트'
● 강사/정성욱(촬영감독,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 24일(월) 오후 7:30 박창호의 인문학특강(2) 본초학의 의의 '유비논증과 경험론'
● 강사/박창호(고음악평론가, 갤러리카페 나다 대표)
- 27일(목) 오후 7:30 오홍선의 돈 이야기(1) 돈 되는 이야기, 영화 '마스터, 찌의 전쟁'
● 강사/오홍선(금융교육전문가)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객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17강
낭만주의 거장, 벨리니, 베를리오즈, 멘델스존, 쇼팽을 향한 여정

일 시 4월 11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제116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일 시 4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서면 신세계안과 문화홀
문의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제12강
농민화가 피테르 브뤼헬

일 시 4월 20일 목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아트 커뮤니케이터 강사 김성민과 함께하는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4월 강좌에서는 북유럽 르네상스의 대표적 화가인 피테르 브뤼헬을 만난다.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제8차 부산사투리 시낭송대회

일 시 4월 25일 화요일 오후 6:30
양정 새홍제병원 강당
문의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전시 | Display

부산 참견錄 2017
모래 아이스크림 - 정주하

일 시 3월 4일(토)~5월 1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055-746-0055
www.goeunmuseum.kr



'부산 참견錄'은 고은사진미술관이 매년 한국의 중견 사진가들 중 한 명을 선정하여 부산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기록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로 선보이는 10년 장기 프로젝트로, 2017년에는 핵 문제와 일상 속의 은폐된 불안에 천착해온 사진가 정주하의 작업을 소개한다. 2013년 강홍구를 시작으로 2014년 최광호, 2015년 이갑철, 2016년 강용석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정된 정주하는 그동안 해운대와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넘나들며 그 사이에 위치한 기장군의 풍경과 일상까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꼬닐리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展

일 시 3월 29일(수)~4월 18일(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1

제12회 구봉연목회전

일 시 4월 3일(월)~4월 9일(일)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한국화 서양화 소품전

일 시 4월 3일(월)~4월 15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추연희 보태니컬아트 개인전

일 시 4월 3일(월)~4월 28일(금)
BNK부산은행 법내골갤러리
문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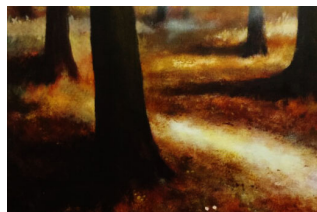
'Human & Nature'展
- 김영진, 박정우, 정도영

일 시 4월 11일(화)~5월 12일(금) 갤러리 아인
문의 갤러리 아인 747-2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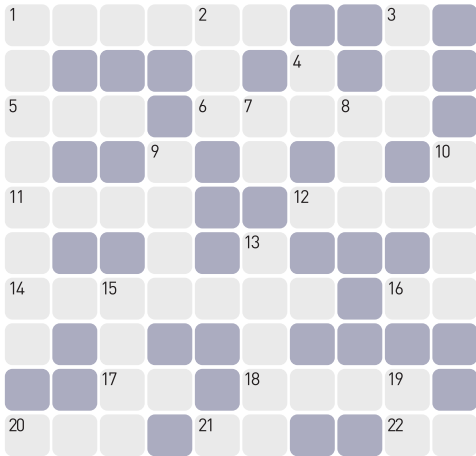


2nd 여근섭 개인전

일 시 4월 25일(화)~5월 8일(월)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BNK 부산은행 조은극장



가로열쇠

- ① 클래식과 철학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2017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시리즈, 인간의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철학사상인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테마로 4월 8일 '희(喜)', 6월 10일 '로(怒)', 9월 30일 '애(哀)', 11월 11일 '락(樂)'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 ⑤ 정식명은 '죽은이를 위한 미사곡'. 진혼곡, 또는 진혼미사곡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 ⑥ 나폴리 수호신의 이름이자 나폴리 해안거리의 지명. 이탈리아 작곡가 코트라우가 작곡한 동명의 나폴리민요는 이 해안에서 황혼의 바다로 배를 저어 떠나는 광경을 노래한 곡으로, 1850년에 발표된 후 나폴리의 어부들 사이에서 불리어오다 전 세계 애창곡으로 자리 잡았다.
- ⑦ 점토나 도자기로 만든 간단한 취주악기로, 손가락 구멍은 4~13개이고 온음계이지만 손가락으로 조절하면 반음계도 낼 수 있다.
- ⑧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모서리에 표현되어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상징하는 4개의 괘(卦).
- ⑨ 세계 3대 미항(美港)의 하나로, 상파울루에 이어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자연과 인공의 아름다움이 잘 어우러진 항구도시로 2012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⑩ 지난 2014년 제22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러시아의 도시.
- ⑪ 영화,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 현지로부터의 보고 기사. 사회적인 현실에 대하여 보고자의 주관을 섞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어로 탐방, 보도, 보고를 뜻하는 '르포르타주'의 줄임말이다.
- ⑫ 에스파냐 내란을 주제로 전쟁의 비극성을 표현한 피카소의 대표작.
- ⑬ 아프리카 대륙 북동쪽에 나일 강 주변을 따라 형성된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명의 역사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수도는 카이로.
- ⑭ 폭풍, 지진, 화산폭발 등이 원인이 되어 바다의 큰 물결이 육지로 갑자기 넘쳐 들어오는 자연현상.
- ⑮ 퇴계 이황과 더불어 조선에서 으뜸가는 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조선의 문신이자 성리학자. 호는 율곡, 어머니는 현모양처의 사표로 추앙받는 사임당 신씨(師任堂申氏)이다.

세로열쇠

- ①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으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이야기하는 말이다.
- ② 신라의 고찰인 불국사, 석굴암이 있으며, 경주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곳이다. 신라시대 5약 가운데 동악(東嶽)이라 하여 호국의 진산으로 신성시했으며 중사(中祀)를 거행했다.
- ③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에서 나오는 독창 가곡. 극적인 음악에 나타나는 기악반주의 독창 곡으로, 음악적인 선율을 중시하고 가창력과 화려한 기교를 표현한다.
- ④ 야구에서, 주자가 타자의 안타나 수비자의 실책에 의지 않고 수비수의 허술함을 틈타 다음루(壘)로 가는 일.
- ⑦ 피파나 피하 조직에 비늘로 작은 구멍을 내고 먹이나 물감을 넣어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일. 문신.
- ⑧ 조선시대의 형구. 곤장의 일종이며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들어 죄인의 불기를 치는 데 사용했다.
- ⑨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피렌체의 부호(富豪)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를 위해 그 부인을 그린 초상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⑩ 이탈리아 작곡가 레온카발로의 2막 오페라로,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함께 대표적인 베리스모 오페라로 꼽힌다. 레온카발로가 직접 대본을 썼으며, 1892년 밀라노 달 베르메 극장에서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 ⑬ 영국의 간호사. 병원, 의료제도의 개혁자. 크림 전쟁 중 이스탄불에서 야전병원장으로 활약했으며 간호사 직제의 확립과 의료 보급의 집중 관리, 오수 처리 등으로 의료 효율을 일신해 '백의의 천사'로 불렸다.
- ⑮ 근대 철학의 창시자이자 합리주의의 대표 철학자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언으로 유명하다.
- ⑯ 깊은 울림 있는 목소리,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섬세함으로 그동안 다양한 작품을 통해 가창력과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뮤지컬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성악가. 최근 들어 KBS '불후의 명곡', MBC '나는 가수다 2', '복면가왕' 등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폭넓게 다가가고 있다.

지난호 정답

1	마	티	네	2	웰	빙	3	콘	서	트	4	풍
리	5	루	6	도	7	해	8	금	9	대	10	학
오	11	다	12	대	13	포	14	대	15	학	16	로
네	17	금	18	색	19	동	20	통	21	트	22	림
프	스	여	권	영	랑	케	니	지	태	국	제	커
17	18	켄	로	치	도	제	19	20	해	조	음	튼
21	22	슈	몽	해	조	음	23	24	콜	카	타	잔
25	26	인	어	공	주	위	령	제	27	28	29	30

3월호 퍼즐 당첨자

옐로인플라워	김성진(서구 대신공원로), 최혜인(수영구 과정로)
공간소극장	권영욱(부산진구 가야대로), 김경희(남구 분포로), 정은영(해운대구 달맞이길) 조경진(금정구 금단로), 황지원(서구 구덕로)
조은극장	박광자(김해시 삼계로), 박설비(사하구 낙동대로), 박정은(수영구 구락로) 윤주연(부산진구 부전로), 정정순(남구 분포로)
큰집식관	강지원(금정구 금정도서관로), 김진영(해운대구 장산로), 박상현(금정구 금강로) 임대원(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정현우(부산진구 부전로)

RECORD



두다멜과 LA필하모닉의 '별빛 아래의 탱고'

구스타보 두다멜(지휘),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앙겔 로메오(기타), 세스 아사리나우 (반도네온), 탱고 부에노스아이레스(탱고)

▶ 두다멜의 지휘봉이 춤추는 여름밤의 탱고

2016년 8월, 미국 할리우드 볼에서 구스타보 두다멜과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펼친 '별빛 아래의 탱고' 공연 실황이다. 피아졸라 '탱가조', 기타리스트 앙겔 로메오가 협연하는 랄로 슈프린의 기타 협주곡, 지나스테라 '에스탄시아의 4개의 춤곡' 그리고 반도네온과 탱고가 함께 하는 피아졸라의 '천사의 죽음' '아디오스 노니노' '망각' '리베르탱고'가 수록되어 있다. 1080i의 초고화질 영상은 블루레이 마니아들이 탐낼만하고, PCM스테레오/ DTS-HD 5.1 오디오 옵션으로 현장의 음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공연은 총 83분. 19분의 보너스 트랙은 탱고에 관한 두다멜, 슈프린, 로메오의 인터뷰(자막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가 들어가 있다.



2016년 독일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실황 베르디 '가면무도회' [한글자막]

요하네스 에라트(연출), 주빈 메타(지휘),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합창단, 표트로 베찰라(리카르도), 안야 하르테로스(아멜리아), 조지 페틴(레나토), 오카 폰 데어 달라우(오스카)

▶ '테너를 위한 베르디의 오페라'를 접수한 테너의 열연!

2016년 주빈 메타가 80살 생일 기념으로 8년 만에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으로 돌아와 지휘한 의미있는 공연이다. 오페라 '가면무도회'는 베르디의 작품들 중 '테너의 오페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이 오페라의 주인공 리카르도 역을 맡은 테너 표트로 베찰라는 아름답고 따뜻한 음색과 선이 굵은 연기력으로 완벽한 리카르도를 구사한다. '운명의 힘'에서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과의 열연으로 명성을 날렸던 아멜리아 역의 소프라노 안야 하르테로스도 이 영상물의 매력도를 높인다. 요하네스 에라트는 감각적이며 초현실적인 조명을 이용해 보는 맛을 더했다. 성악진과 오케스트라의 밀도를 높여 착각 감기는 탄력감으로 밀고 나가는 주빈 메타의 지휘 역시 일품이다.



메르카단테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한글자막]

파비오 루이지(지휘), 이탈리아 국립교향악단, 클루지나포카 국립 합창단, 레오노르 볼리리(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역), 안토니오 디 마테오(귀도 다 폴렌타 역), 아야 와키 조노(파올로 역)

▶ 우리가 모르던 비극오페라와 만나는 짜릿함!

2016년 제42회 발레 디트리야 여름 페스티벌에서 선보였던 메르카단테 (1795~1870)의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실황 영상물이다. 파비오 루이지가 이끄는 이탈리아 국립교향악단의 음악은 풍성하고 격정적이며, 피에르 루이지 피치의 연출과 무대의상, 조명은 간결하면서도 역사적 상상력이 가득하다. 단테의 '신곡'을 비롯하여 많은 예술 작품의 주제가 되었던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소프라노)와 청년 파올로(메조소프라노)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바지역할'의 일본 메조소프라노와 키조노의 카리스마가 인상적이다. 한국어 자막에, 현장의 생생한 음질 또한 압도적이다.



박현주 · 북칼럼니스트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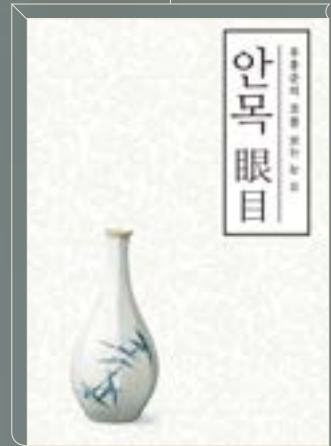
강석우의 청춘클래식
강석우 지음 / CBS북스 / 268p / 1만 3천 원

하이틴 스타에서 출발하여 배우, 탤런트, 라디오 진행자를 거쳐 CBS FM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로' 활약을 하고 있는 강석우가 자신의 삶에 클래식 음악을 담은 에세이를 펴냈다. 음악과 삶을 함께 담은 이 책은 강석우의 까까머리 중학 생 시절 음악시간 에피소드로 시작된다. 난생처음 듣는 '드보르작도 웃기고 '사라사테도 웃겼다'던 소년의 고백, 피아노는커녕 풍금도 없어 음악 선생님이 입으로 음정을 선창하면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못 먹고, 못살았던' 그 시절의 아련한 풍경이 흑백필름처럼 휘돌아간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음악은 있었다. 초등학교 때 부산 해운대에 놀러갔다가 모래밭에 묻어둔 옷을 찾지 못해 속옷 차림으로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온 한여름 날의 아련한 추억에는 슈만의 '어린이의 정경'이, 대학 시절에는 추운 국립극장 한 구석에 앉아 난생 처음 본 베르디의 오페라 <라 보엠>과 아리아 '그대의 찬송'이 함께 했다. 강석우는 유년과 청춘의 기억 65개 에피소드 말미마다 한 곡의 클래식 음악을 소개한다. 독자들이 직접 동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앨범 재킷과 함께 QR코드를 실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연결돼 글을 읽으며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두잉으로
윤주 / 살림 / 124p / 4천 8백 원

스토리텔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림으로써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꿰뚫고,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스토리두잉의 새로운 면모를 살림으로써 스토리두잉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한 책. 이야기 (Story)와 '말하기(Telling)'의 함성어인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특정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스토리텔링은 언제부터인가 문학이나 드라마, 영화, 게임 같은 이야기 기반의 콘텐츠뿐 아니라 경영, 마케팅 디자인, 교육, 정치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이란 용어가 다양한 영역과 결합하며 빠르게 확산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스토리텔링이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스토리텔링'은 아주 오래전,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광범위하게 쓰이는 '스토리텔링'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인 '스토리두잉(Storydoing)'에 가깝다. 단순히 '이야기의 전달'에 그치는 스토리텔링보다는 '직접 행하거나 실천하게 한다'는 의미의 스토리두잉 개념이 더 강한 것이다. 이 책은 스토리두잉을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안목
유흥준 지음 / 놀와 / 320p / 2만 원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이너 박현택의 <오래된 디자인>이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2013년 출간되어 독자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이 책의 개정판에서는 기존 내용을 충실히 소개하되 글자와 도판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판형 및 제책 방식에 변화를 주어 독서 기능성도 한층 높였다. 박물관은 오래된 물건을 모아놓은 곳이며, 오래된 것이란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생명력 있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오래된 것을 자국이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래된 것이 무조건 좋은거리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딱히 오래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새로운 것이 많이 등장하는 세상이니 오래된 것이나 지속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을 통해 좋은 디자인을 찾기에 앞서 좋은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먹도끼' '요강' '청자병' '세한도' 등에서부터 우리 선배들의 일상품인 '등잔' '절구' 등까지 저자는 다양한 사물의 디자인이 등장시킨다. 예술이 위대하다 해도 결코 삶에 앞설 수 없다는 시각으로, 물건에 담긴 삶의 진실을 살펴보고 인문학적 시각으로 확장시켜 준다.

(재)부산문화회관 오페라 아카데미

2017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 백스테이지(Backstage) 오페라

4월 18일(화)-6월 20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2:00 (재)부산문화회관 컨퍼런스홀

국내 정상급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가 진행하는 아주 특별한 강의 '2017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백스테이지(Backstage) 오페라'가 4월 18일부터 석달간 (재)부산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다.

영상을 통한 연출가의 해설과 함께 오페라 속 유명 아리아를 성악가의 실연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강의는 특히 연출자 이의주가 직접 연출한 작품에서 경험한 무대 뒷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오페라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이 아닌 수강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대의 사회상을 함께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강의로, 오페라의 화려함은 물론 그 뒤에 가려진 오페라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지난해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강사로 부산을 찾았던 연출가 이의주는 최연소 국립오페라단 상근 연출, 한국인 최초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극장 연출, 예술의전당,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 국내 주요 무대에서 150편 이상의 오페라를 연출한 바 있다. 수강생은 3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50명 모집한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607-6061~3, www.bscc.or.kr)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문화예술 수준 향상 노력

(재)부산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박인건)과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이 지난 2월 21일 상호협력과 문화예술사업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합의한 주요 협약내용에 따르면 ▲각 기획공연의 교류 및 합동공연 추진 ▲ 기획공연 공동 제작 추진 ▲ 예술행정 정책 공동개발 및 정보교류 ▲ 지역예술인(단체) 교류에 관한 사항으로, 양 기관은 특히 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연장의 운영 및 예술행정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재)부산문화회관과 대전예술의전당은 공동제작의 일환으로 올해 10월 비엔나 챔버플레이즈, 11월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초청공연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 관람객 교통편의 개선 시내버스 정류소명 변경, 셔틀버스 확대운행

기존 '시립박물관(유엔공원)'으로 표기되던 부산문화회관 시내버스 정류소명이 '시립박물관(유엔공원)·부산문화회관'으로 변경되고 지하철 대연역과 부산문화회관을 오가던 셔틀버스가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행되면서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람객으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람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기존 저녁 7시 1회 운행되던 셔틀버스를 모든 공연 시작 '1시간 전, 30분 전'으로 2회(단, 주말 제외) 늘이고 공연 후와 낮시간 공연이 있는 날에도 셔틀버스를 추가 운행하고 있다. 낮시간 공연일 경우 모든 공연 시작 '30분 전'에 1회(단, 주말 제외) 운행하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부산문화회관 주차장 입구를 출발, 대연역까지 한차례 운행한다.



부산시립무용단 김용철 예술감독

PAF 예술상

‘올해의 베스트 춤 레퍼토리상’ 수상

부산시립무용단 김용철 예술감독이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평론지 ‘공연과 리뷰 (Performing Arts and Film Review, 현대미술사)’가 주최하는 ‘PAF 예술상’에서 ‘올해의 베스트 춤 레퍼토리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PAF 예술상’은 공연평론지 ‘공연과 리뷰’가 매년 공연 예술가들의 예술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해오고 있는 예술상으로, 지난 1년간 전국에서 공연된 영화, 연극, 무용, 비평을 대상으로, 총 11개 부문에 수상자를 선정, 시상해오고 있다.

김용철 예술감독의 ‘올해의 베스트 춤 레퍼토리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지난해 7월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취임기념으로 선보였던 창작춤 ‘업경대’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아시아적 세계관과 극장주의적 환상을 부각시킨 감성의 판타지 전개’라는 호평과 함께 새로운 창작추세에 동참하려는 의지와 더불어 창작무용의 예술성을 높였다는 공로로 수상받게 되었다.

‘업경대’는 오는 11월, 부산시립무용단 제77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다시 관객과 만난다.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2017년 드림&비전 댄스 페스티벌’ 참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사)창무예술원이 주최하는 ‘2017년 드림&비전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2017년 드림&비전 댄스 페스티벌’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무용가들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국제무대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무용축제로, 매년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안무력을 갖춘 안무가들을 위한 참신하면서도 실험적인 작품들의 발표의 장으로 마련되어 왔다.

4월 15일까지 총 20여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단원 장영진과 박미나는 창작무 ‘섬농(織穡)-그 섬세한 아름다움’을 4월 4일과 5일 이틀간 서울 포스트극장 무대에 올리며, 수석단원 안주희의 안무, 박미란의 연출, 강모세, 최익옥, 안주희가 출연하는 ‘덧. 장. 없다’는 페스티벌 마지막날인 4월 14일과 15일 같은 무대에 오른다.

이번 무대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수석단원 장래훈과 허태성, 전현우가 (사)창무예술원이 주최하는 ‘2017 내일을 여는 춤(2월 7일-24일, 포스트극장)’에 참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들놀이’의 산대도감극에서 모티브를 얻어 과거 민중 속에서 전승된 전통연희의 놀이적 성격을 현대적 언어로 치환한 ‘미알할멈들’(안무/장래훈)을 선보인 바 있다.

4월 찾아가는 예술단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만나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4월,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일정	4월 4일	오전 10:00 부산여성문화회관 부산시립무용단 ‘드라마 음악과 함께 하는 춤 여행’
	4월 5일	오후 4:00 기장직업능력센터 부산시립무용단 ‘드라마 음악과 함께 하는 춤 여행’
	4월 7일	오전 11:00 그랜드호텔 부산시립합창단 ‘제49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4월 19일	오전 10:00 민주공원 충훈탑 특설무대
		부산시립합창단 ‘제57주년 4·19혁명 기념식’



BACKSTAGE OPERA

—백스테이지 오페라—

4. 18 ~ 6. 20

매주 화요일 14:00~16:00 (총 8회)

(재)부산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신청기간 : 3. 27(월) ~ 선착순 접수마감
- 신청방법 : 홈페이지(bscc.or.kr), 전화, 방문
- 모집인원 : 50명
- 수 강 료 : 70,000원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 전시교육팀 051-607-6061~3

“성악가가 불러주는 오페라 속 유명 아리아 그 어디에서도 들 수 없는 연출가의 경험담, 무대 뒷이야기를 들 수 있는 기회. (재)부산문화회관 '백스테이지 오페라' 강좌에서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가 전할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

- 최연소 국립 오페라단 상근 연출 역임
- 한국인 최초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극장 연출
-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아이다 연출
- 비평가 선정 성장 동력 연출가 선정
- tvN 오페라 스타 시즌 1 무대 총연출
- 텐테니스 콘서트 연출 등
- 유수의 단체에서 수십 편의 오페라 및 콘서트 연출

회차	일정	작품명과 아리아
1회	4월 18일	비제 : 카르멘, Toreador's Song '투우사의 노래'
2회	4월 25일	모차르트 : 돈 조반니, La ci darem la mano '자, 손을 잡고 저기로 가요' (2중창)
3회	5월 9일	푸치니 : 라보엠, Quando m'en vo '내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 무젯따 왈츠
4회	5월 16일	롯시니 : 세빌리아 이발사 Una voce poco fa' '방금 들린 그 음성' ... 로지나
5회	5월 23일	모차르트 : 피가로의 결혼 Voi che sapete '그대 아시나요, 사랑을' ... 케루비노
6회	5월 30일	도니제티 : 돈 파스쿠알레 Quel guardo il cavaliere '그 눈길에 기사마의 마음을 사로잡아'
7회	6월 13일	생상스 : 삼손과 데릴라 Mon coeur s'ouvre a ta voix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8회	6월 20일	오페라 하이라이트 '리골렛토 4중창'

2017 부산오페라 WEEK 참가 지원 공고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즈음하여 '부산오페라 Week'참가작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부산지역의 오페라 성장과 오페라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지역 오페라단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자 2017년 12월 중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중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재)부산문화회관

선정 방향

작품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오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지원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기재되어 있는 단체, 최근 3년 이내 전문공연장에서 오페라 제작 및 공연 실적이 있는 단체

문의처

(재)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
051-607-6053

지원내용

제작비 일부 지원

오페라 전막(2일 2회 이상) : 100,000,000원
오페라 인 콘서트 : 50,000,000원
오페라 갈라 콘서트 : 30,000,000원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17년 4월 10일(월)~4월 13일(목) 17:00 까지

- 마감기한 이내 접수분에 한함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대연동) 부산문화회관 2층 공연기획팀

제출서류

공통 제출

- ① 지원서 양식 1부(첨부파일 참고)
 - ②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③ 공연계획서(예산, 배역, 연출가, 아티스트 등) 7부
- *선택 제출 : 언론보도자료, 홍보인쇄물, 사진자료 등

결과발표

최종발표 : 2017년 4월 중(예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게시판 참조

BUSAN OPERA HOUSE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의 소중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좋은 공연,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가입신청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 www.bscc.or.kr | 051-607-6075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 : (재)부산문화회관]
방문신청 부산문화회관 사무동(2층) 홍보마케팅팀

관람권 예매

예매수령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 www.bscc.or.kr | 051-607-6075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대표소 제시)

주의사항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 하루 전 17: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능)
 입장권 예매 후 가상계좌입금(기간 내에 미입금 시 예매 자동취소)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능

V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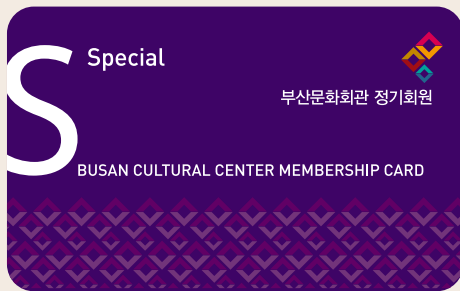


연 회 비 10만 원
초 대 권 8매(기획공연 4매, 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지정된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최대 관람료의 다음 좌석부터 지정 예매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무료주차권 10매(유료 시행 시 제공)

SPECIAL



연 회 비 5만 원
초 대 권 4매(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무료주차권 6매(유료 시행 시 제공)

MEMBER



연 회 비 3만 원
초 대 권 2매(예술단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무료주차권 4매(유료 시행 시 제공)
- 비가입 단체회원 예술단공연 입장료 10~20% 할인

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 | 극단

공통 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음료 등 제공)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공연정보(SMS) 제공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 (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무료주차권(유료 시행 시 제공), 제휴업체 할인 등(제휴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지휘 이동신



마티네

조운범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Ⅲ



소프라노 박현주



테너 김준연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Program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정타의 발라드

〈위른베르크의 명가수〉

아침은 장미빛으로 변하고

〈지그프레드 목가〉

〈로엔그림〉

메나헨 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사랑의 죽음

2017.4.28(금)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협찬 SHINSEGAE H+ 와이주에어 커피

문의 및 예약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051) 607-6000 인터파크 1544-1555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EVENT

- 1 추첨을 통해 신세계 면세점 Gift Card와 화이주에어 상품권을 드립니다.
- 2 선착순 500명께 커피를 무료로 드립니다.

글 로 켈
비전센터
이웃초청
콘서트

2017
4월 18일(화)
7:30pm



문의 : 559-3900

윤형주의
사랑
이야기



암이 다른 부위로 못 가게 하는
전이 예방을 위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암

암 전이 방지 및 치료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SCI(Science Citation Index : 과학 기술 논문 인용 색인)에서
검증된 논문 연구에 의해



간단한 혈액 검사로 전이 추정



맞춤형 치료



한달 간격으로 혈액 검사로 효과 추정

| 치료 중 |

효과 증진

부작용 감소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치료중인 분들 중 여러번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체력이 견디지 못할 시에도 치료가능 합니다.

| 치료 후 | 전이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

본 원이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 될수 있는 이유

SCI(Science Citation Index : 과학 기술 논문 인용 색인)에서 검증된 논문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맞춤형 치료

본인의 혈액 검사에 따라 추정되는 적합한 치료를 합니다

2. 간단한 혈액 검사로 전이 추정

암의 본원 치료 효과 및 전이 추정을 단순한 혈액 검사로 합니다



희망클리닉의원 9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47 한누리 빌딩 9층

051) 804-0999

*외래진료만 가능합니다.

TRISHA



GDD DESIGN
GDD DESIGN
12121 04100 30-000000



다이아몬드의 모든 것

다이아몬드,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2017. 4. 1 (화) - 4. 30 (일)

1캐럿 다이아몬드 ~~12,140,000원~~ → **10,000,000원**

1캐럿 0.50ct 이상 1캐럿 미만

3부 ~ 1캐럿 다이아몬드 **20~5% OFF**

1캐럿 미만 0.50ct 이상 1캐럿 미만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

MIKKO FRANK, MUSIC DIRECTOR

지휘 미코 프랑크



시벨리우스
「크리스티안 2세」 모음곡 중 '죽탄'

거슈인
피아노 협주곡 F장조

라벨
「어미 거위」 모음곡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

협연 피아니스트 손영음

2017/5/20 | 토 | 7:30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 주 최 | 부산문화회관 | 부산일보사 | 후원 | Amundi | 문의 및 예매 | 051-607-6000 www.bscc.or.kr 초등학생이상 입장가능

누네빛안과는 환자의 눈 상태, 생활습관과
직업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방법을 권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네빛안과

light for your eyes

롯데호텔 14F | 051.810.5678
www.nunevit.com



모두가 누리는 생활 속에
화승의 기술이 숨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물론 신발ODM과 무역,
화학과 소재의 미래산업까지-
화승의 기술은 항상 당신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화승은 분야를 넘어, 세계를 넘어
세계의 화승으로 한번 더 크게 도약합니다.

사람과 기술을 잇는 글로벌-화승



- 자동차부품


- 소재


- 화학


- 신발ODM


- 총업부역

